

시즌3 : 메타파일럿 비행교관

부제 : 디지털의 하늘, 초음속의 세계로



[프롤로그] 환영사 (Welcome to the Supersonic)

1.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거대한 격납고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는 프로펠러 소리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시즌 2의 훈련장과는 차원이 다른, 차가운 금속성과 최첨단 장비의 열기가 감돌고 있었다.

봄이 오려면 멀었지만 다시, 단상 위에 선 ‘씨걸’ 은 시즌2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 까다로운 야생마, BF-109를 길들이고 살아남아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훈련생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폈다.

“여러분은 시즌 2에서 전투를 위한 ‘기동술’과 ‘사격 감각’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곳 시즌 3에서는 다릅니다. 여기는 감각이 아니라 ‘시스템’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시속 300km로 돌던 프로펠러는 잊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음속의 두 배, 마하 2.0의 속도로 하늘을 찢게 될 겁니다.”

2. 세 마리의 괴물

씨걸 교관이 뒤편의 스크린을 가리켰다. 세 대의 항공기 실루엣이 떠올랐다.
“이곳 초음속 비행기의 훈련 과정에는 매력적인 기체들이 많습니다. 개성 강한 세 녀석을 소개하죠.”

첫 번째 화면에 투박하고 단단해 보이는 공격기가 나타났다. “Su-25T 프로그풋 (Frogfoot). ‘날아다니는 탱크’입니다. 적의 대공포화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상을 초토화하는 녀석이죠.”

화면이 바뀌며 헬리콥터가 등장했다. “UH-1H 휴이(Huey). 베트남전을 상징하는 전설적인 기동 헬기입니다. 고정익기와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과 조종 기술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날렵하고 세련된 실루엣의 전투기가 등장했다. “그리고, F-16C 바이퍼(Viper).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자 현대 다목적 전투기(Multi-role Fighter)의 교과서입니다.”

훈련생들이 술렁거렸다. 저 멋진 기체들을 다 타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씨걸 교관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다.

3. 단 하나의 선택: F-16C Fighting Falcon

“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서 오직 F-16C, 단 한 대만 훈련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씨걸 교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현대 전투기는 단순히 조종만 잘해서는 날 수 없습니다. 레이더, 무장 시스템, 항법 장비, 데이터 링크... 수십 개의 컴퓨터를 동시에 다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세 대를 다 타보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를 제대로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익힐 수 있습니다.”

그는 F-16C의 실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시즌2의 BF-109가 대표 야생마였다면, F-16C는 ‘날개 달린 슈퍼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대로 완벽하게 반응하는 전자 장비 시스템의 정점이죠. 이 기체 하나로 공대공 전투, 공대지 폭격, 정밀 타격 등 현대전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메타파일럿을 향한 마지막 관문

씨걸 교관은 다시 훈련생들을 향해 섰다.

“물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혹독한 F-16C 과정을 수료하고 ‘메타파일럿’이 된다면, 그때는 시즌2처럼 여러분이 튜터나 교관이 되어 Su-25T 또는 UH-1H 같은 다른 기체들을 연구하고 후배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과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메타파일럿이 추구하는 미래입니다.”

격납고의 조명이 F-16C의 캐노피 위로 쏟아졌다. 매끈한 곡선과 날카로운 날개가 빛을 받아 번쩍였다.

“이 과정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렵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과 복잡한 버튼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이 녀석의 애프터

버너(Afterburner)를 켜고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는 땅으로 내려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씨겔 교관이 경례를 붙였다.

“준비됐습니까? 메타파일럿을 향한 마지막 비행, 시즌 3 F-16C 훈련을 시작합니다. 전원 탑승!”

[Chapter 1] 300개의 버튼 (Cold Start)

1. 어둠 속의 우주선

“VR 헤드셋 착용 완료. 시뮬레이션 로딩... F-16C Viper 훈련 시작!”

눈을 뜨자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야간 비행이 아니라, 아직 기체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좁고 경사진 시트, 내 몸을 꽉 조이는 G-슈트의 압박감. BF-109가 클래식 감옥이었다면, 이곳은 수많은 버튼과 스위치로 둘러싼 우주선 같았다.

“환영한다. 이곳이 네가 일할 사무실(Office)이다.”

헤드셋 너머로 씨겔 교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씨겔 님... 버튼이 너무 많은데요? 대충 봐도 3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스위치와 계기판이었다. 왼쪽 콘솔, 오른쪽 콘솔, 전방 계기판... 숨이 턱 막혔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겁먹지 마. 위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Flow)’을 이해하면 된다. 배터리 전기를 넣고, 공기를 불어넣고, 엔진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뇌를 깨운다. 시작해.”

2. 혈액을 돌려라 (Main Power)

나는 훈련 영상을 보며 왼쪽 콘솔 뒤편의 ‘MAIN PWR(메인 파워)’ 스위치를 ‘BATT’를 거쳐 ‘MAIN’으로 딸깍 올렸다.

지이이잉—

미세한 전자음과 함께 조종석 곳곳에 작은 불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죽어있던 기체에 혈액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제트 퓨얼 스타터(JFS). 이 녀석의 큰 엔진을 배터리 힘으로 돌릴 수는 없어. 작은 보조 엔진을 먼저 돌려야 한다.”

‘JFS START 2’ 스위치를 아래로 내렸다.

위이이이잉—!

기체 뒤쪽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치과 드릴 소리 같기도 하고, 거대한 터빈이 도는 소리 같기도 했다. RPM 게이지 바늘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RPM 20% 도달. 이제 진짜 심장에 불을 붙여.”

나는 왼손으로 스로틀(Throttle) 레버를 잡고 ‘IDLE(공회전)’ 위치로 툭 밀어 넣

었다.

콰아아아—!

뒤쪽에서 웅장한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부르르 떨렸다. 단순한 진동이 아니었다. 거대한 맹수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강력한 울림이 등골을 타고 전해졌다.

3. 뇌를 부팅하라 (Avionics & INS)

엔진 소리가 안정되자,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 바로 ‘슈퍼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전방 콘솔, 항공 전자 장비(Avionics) 전원 ON. 그리고 INS 노브를 ‘ALIGN’으로.”

스위치를 올리자 전방에 있는 두 개의 네모난 화면(MFD)과 눈앞의 투명한 유리에 녹색 글씨들이 떠올랐다. HUD(헤드업 디스플레이)였다.

“지금부터 이 비행기는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자아? 웬 자아??”

“그러니까 INS(관성 항법 장치) 정렬 중이다. 자기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균형은 맞는지 계산하는 거지. 이 녀석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약 8분. 기체를 1mm도 움직여선 안 된다. 움직이는 순간, 이 슈퍼컴퓨터는 방향 감각을 잃고 바보가 돼 버리니까.”

우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화면 속 숫자들이 카운트다운 되듯 줄어들었다. 마치 컴퓨터가 부팅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BF-109 때는 그냥 프로펠러만 돌면 됐는데, 현대 전투기는 준비 과정에서 의식(Ritual)처럼 엄숙했다.

4. 준비 완료 (Ready)

“INS 정렬 완료. 노브를 NAV(항법)로.”

드디어 조종석 앞 유리의 HUD에는 수평선과 고도, 속도계가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레이더가 돌고, RWR(레이더 정보 수신기)이 주변의 전파를 탐지하기 시작했다.

나는 캐노피(Canopy) 덮개를 내렸다. 쿨쿨— 철컹. 외부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내 숨소리와 기계의 구동음, 그리고 교관의 목소리만 남았다.

“어때, 카야. 느낌이 좀 다르지?”

나는 조종간을 째 쥘 채 대답했다.

“어... BF-109는 기계장치들이 회전하며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이 녀석은... 뭔가 정교한 무기 시스템 같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뭐든 하겠다는 듯이요.”

“정확하다. 아늑하진 않지만 그게 바로 F-16C다. 자, 이제 이 독사를 활주로로 데리고 나가보자.”

[유튜브 댓글창]



ButtonMasher: 와... 시동 거는 데만 10분 걸리네. 조종간의 자동 시동 버튼

누르면 돼요 카야님. ㅋㅋㅋ



GreaseMonkey: JFS 돌아가는 소리 ASMR 실제 같다... 진짜 제트기 옆에 있는 것 같음.



SimPilot_kr: INS 정렬할 때 움직이면 맵 다 들어짐 ㅋㅋ 뉴비들 썰 많이 하는 실수. “어? 왜 내 비행기 내비게이션이 산으로 가지?”



Viper_Lover: 저 녹색 HUD 켜질 때 뽕맛... 이 맛에 바이퍼 타죠.

[Chapter 2] 등을 걷어차는 힘 (Taxi & Takeoff)

1. 지상에서는 자동차 (NWS)

“과킹 브레이크 해제. 활주로 36번으로 이동해.”

스로틀을 살짝 밀자 기체가 부드럽게 앞으로 굴러갔다. BF-109를 탈 때는 지상에서 방향을 바꾸려면 브레이크를 밟고 러더를 차고 난리를 쳐야 했는데, 이 녀석은 달랐다.

“와... 핸들링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NWS(Nose Wheel Steering, **전륜 조향 장치**) 덕분이지. 러더 페달로 조종하면 앞바퀴가 자동차처럼 돌아간다. 지상에서는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러더 페달을 발로 밟으며 유도로의 노란 선을 따라 매끄럽게 움직였다. 덜덜 거리는 진동도,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엔진 카울링도 없었다. 탁 트인 캐노피 너머로 활주로는 멀리까지 시원하게 보였다.

2. 폭풍 전야

활주로 정렬 완료. 끝없이 뻗은 활주로는 내 앞에 펼쳐졌다.

“자, 카야. 제트기의 진짜 힘을 볼 시간이다. 브레이크 밟고, 엔진 출력 90%까지 올려.”

나는 러더 페달의 브레이크를 짹 밟은 채 스로틀을 밀었다.

쿠오오오오—!

기체가 튀어 나가고 싶어 안달 난 맹수처럼 들썩거렸다. 엔진 노즐이 조여지며 뜨거운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있었다. 계기판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가리켰다.

“브레이크 풀고, **최대 출력(Max Power)! 애프터버너(Afterburner) 점화!**“

3. 등짝 스매싱 (Afterburner Takeoff)

나는 심호흡을 하고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다. ‘탁’ 하고 걸리는 느낌(Detent)을 넘어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콰아아앙!!!

순간, 누군가 뒤에서 등짝을 친 것 같았다. 아니, 거인의 손이 나를 시트 깊숙이

처박아 버리는 느낌이였다.

“으억?!”

BF-109의 가속이 ‘우우웅’ 하며 서서히 빨라지는 느낌이였다면, F-16C의 애프터버너는 그냥폭발이였다. 엔진 뒤쪽에서 시뵐건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기체를 미친 듯이 앞으로 밀어붙였다.

속도계 바늘이 솟구쳤다. 50노트... 100노트... 150노트(약 280km/h)... 불과 몇 초 만이였다.

“이제 당겨!”

4. 하늘로 쫓히는 화살

조종간을 살짝 당기자, 기수(Nose)가 깃털처럼 가볍게 들렸다. BF-109처럼 한쪽으로 뒤틀리는 토크(Torque) 현상은 전혀 없었다. 기체는 자를 대고 선을 그은 것처럼 활주로 중앙을 뚫고 곧장 하늘로 솟구쳤다.

“기어 업(Gear Up)! ”

랜딩기어가 접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 저항이 사라지자, 가속도는 더 붙었다.

“이게... 제트기?”

활주로가 순식간에 성냥개비만 하게 작아졌다. 고도계는 이미 5,000피트를 넘어가고 있었다.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로켓에 매달려 날아가는 기분이였다.

“카야 스로틀 줄여! 이대로 가면 음속 돌파해서 유리창 다 깬다!”

씨걸 교관의 음성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황급히 애프터버너를 켜다.

피우우웅—

화염이 꺼지며 등 뒤를 밀던 압박감이 사라졌다. 그제야 참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후아... 이거 힘이 진짜... 엄청난데요?”

“그렇지? 프로펠러는 바람을 타고 날지만, 제트 엔진은 힘으로 하늘을 찢고 올라가는 거야.”

구름 위, 파란 하늘이 눈 시리게 펼쳐져 있었다. 걱정이 앞섰던 나의 시즌 3는, 이렇게 폭발적인 굉음과 함께 가볍게 시작되었다.

[유튜브 댓글창]



Afterburner_Junkie: 와... 이륙할 때 불꽃 나오는 거 봐. 남자의 로망이 다 진짜.



Prop_Lover: (BF-109 유저) 님들 저거 사기 아님? 우리는 이륙할 때 러더 차느라 발에 쥐 나는데 재는 그냥 일직선으로 가네 —



G-Force: 카야 님 목소리 떨리는 거 ㅋㅋㅋ 처음 애프터버너 켜면 진

짜 “억” 소리 나죠.



Viper_Driver: 활주로에서 150노트까지 10초 컷. 이게 바로 추력 대 중량비 1:1의 위엄.

[Chapter 3]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Performance & FBW)

1. 추락하지 않는 비행기

이륙 후 고도 15,000피트까지 올랐고 구름이 발아래 하얗게 깔려 있었다.

“오늘 훈련은 바이퍼 전투기의 성능 테스트다. 카야, BF-109 탈 때 기억나? 속도가 느릴 때 조종간을 확 당기면 어떻게 됐지?”

“바로 실속(Stall)에 걸려서 빙글빙글 돌며 추락했습니다. 저속에서 급선회하다가 몇 번 죽을 뻔했죠.”

“좋아. 그럼 지금 스로틀을 끄고, 속도가 200노트 이하로 떨어지면 조종간을 끝까지 당겨봐.”

“네? 이 속도에서요? 그럼 바로 스피ن 걸려서 추락할 텐데요?”

“한번 당겨 봐. 훈련이야.”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스로틀을 줄였다. 속도가 줄어들었다. 비행기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조종간을 뒤로 팍 당겼다. BF-109였다면 세상이 뒤집혔을 순간이다.

2. 보이지 않는 손 (Fly-By-Wire)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행기는 기수를 쳐든 채 안정적으로 하강만 할 뿐, 뒤집히거나 스피ن에 빠지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조종간을 흔들어도 비행기는 요지부동, 딱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만 움직였다.

“이게... 뭐죠? 왜 안 뒤집혀요?”

“그게 바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Fly-By-Wire)**다. 네가 조종간을 당기면, 컴퓨터는 ‘기수를 들어라’는 명령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기면 추락한다’고 판단해서 네 명령을 적당히 무시하고 기체를 안정시키는 거지.”

“와...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컴퓨터가 막아주는 거네요?”

“그렇지. 넌 비행 역학을 고민할 필요 없어. 그건 비행 제어 컴퓨터가 한다. 넌 오직 ‘어디로 갈지’, ‘무엇을 쏠지’만 생각하면 돼. 그게 이 독사(Viper)의 무서움이다.”

3. 중력이라는 이름의 괴물 (9G Test)

“컴퓨터 성능은 확인했으니, 이제 ‘인간 성능’을 테스트한다. 초음속 제트기 조종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바로 **고하중(G-force)**이다.”

씨걸 교관의 지시사항이 많아졌다.

“속도 450노트 (시속 약 833km/h) 유지. 스톱틀 최대한 밀고 수평 선회 실시. 목표는 **9G(중력의 9배)**다.”

“구... 9G요? 사람이 버틸 수 있습니까?”

“내 구령에 맞춰. 3초 뒤 시작. 힙(Heep)! 흠! 다리와 배에 힘 짝 쥐!”

나는 스톱틀을 최대한 밀고 조종간을 옆으로 꺾으며 강하게 당겼다.

쿠구구구구—!

선회를 시작하자 순간, 보이지 않는 코끼리가 내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았다.

아니, 전신의 피가 발가락으로 쏠려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으으윽...!!”

내 몸무게가 9배로 늘어났다. 60kg인 내 몸이 순식간에 540kg이 된 것이다. 헬멧이 바위덩어리처럼 무거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허벅지와 종아리를 감싼 G-슈트(G-Suit)는 피가 쏠리는 것을 막으려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4. 터널 속의 시야 (G-LOC)

“힘 쥐! 숨 내쉬지 말고 끊어 쳐! 히! 히!”

씨걸 교관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눈앞의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까맣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터널 비전(Tunnel Vision)**이었다.

‘안 돼... 기절하면 죽는다...’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있었다. 시야가 점점 좁아져 바늘구멍만 한 빛만 남았다. 나는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주며 특수 호흡법(L-1 Maneuver)을 실시했다.

“흠! 크흐읍! 히! 히!”

“**낙 잇 오프(Knock it off)! 조종간 풀어!**”

조종간을 놓자마자 압력이 싹 사라졌다. 좁아졌던 시야가 다시 환하게 돌아왔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늘어졌다.

“후우...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잘 버텼다. 방금 9.2G 찍었어. 기체는 멀쩡하지? F-16은 9G도 거뜬해. 항상 조종사가 먼저 의식을 잃어서 문제지.”

실제 전투기 파일럿만이 겪는다는 블랙아웃(Blackout) 현상. 화면이 어두워지며 시야가 흐려지는 그 공포를 가상의 대화로 생생하게 체험한 순간이었다.

5. 소리의 벽을 넘어 (Mach 1.0)

“고생했어. 마지막으로 선물이다. 고도 30,000피트까지 상승해서 풀 파워로 달려 봐.”

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고도를 높였다. 공기가 희박한 고공에서 애프터버너를 켜자, 계기판의 마하(Mach) 수치가 0.9... 0.95... 를 지나 1.0을 넘겼다.

콰광! (외부에서는 소닉붐의 굉음이 들렸겠지만)

조종석 안은 오히려 고요해졌다. 진동이 사라지고, 기체는 마치 얼음판 위를 미끄

러지듯 부드럽게 나아갔다. 속도계는 마하 1.2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목소리보다 비행기가 더 빨라진 순간이었다.

“어때? 초음속의 세계가?”

“고요하네요. 그리고... 정말 빠릅니다.”

BF-109의 야생마 같던 진동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지성과 압도적인 속도만이 존재했다. 나는 이제야 내가 진짜 ‘소리의 벽을 넘은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유튜브 댓글창]



Elephant_Sit: 놀이기구 바이킹이 2G 정도 아닌가? 9G... 압박이 엄청 날 거 같은데? ㄷㄷ



Blackout: 카야 님 방금 숨소리 ㅋㅋㅋ “헉! 헉!” 저거 실제 전투조종사 호흡 법(L-1) 맞음. 안 저러면 바로 기절(G-LOC)해서 요단강 건넘.



FBW_Master: 야생마 타다가 FBW 타면 진짜 신세계지. “어? 이게 안 뒤집혀?” 마음껏 땡겨도 됨 ㅋㅋㅋ



SonicBoom: 마하 돌파할 때 계기판 흔들림 멈춘은 레알 디테일함.

[Chapter 4] 녹색 유령을 따라 (HUD Navigation)

1. 종이 지도는 버려라

“자, 바이퍼 성능 테스트는 끝났다. 이제 다음 훈련 구역인 ‘스티어포인트 (Steerpoint) 2’로 이동한다. 카야, 지도 꺼내봐.”

나는 습관처럼 허벅지(Kneeboard)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BF-109 때처럼 꼬깃 꼬깃한 종이 지도는 없었다.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는 나를 보고 씨겔 교관이 피식 웃었다.

“농담이다. F-16에 종이 지도는 필요 없다. 네 앞 유리에 펼쳐진 HUD(Head-Up Display), 저 유리창에 비친 녹색 화면이 지도이자 나침반이다.”

“이 복잡한 선이랑 숫자들을 보고 길을 찾는다고요?”

“그래.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지. 자, HUD 화면의 오른쪽 아래를 봐. 숫자가 보이지? 그게 다음 목적지 ‘스티어포인트(Steerpoint)’ 번호다. 지금 ‘2’라고 되어 있지?”

2. 하늘에 떠 있는 다이아몬드 (Steerpoint)

“전방 HUD 화면 속에 작은 다이아몬드 ◇ 표식이 떠 있지?”

“네, 보입니다!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네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짚어주는 거지. 넌 그냥 비행기를 몰고 저 다이아몬드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세상에. BF-109 때는 “지도 보며 강이 갈라지는 곳에서 3시 방향 굴뚝...” 하면서 눈이 빠져라 땅을 뒹졌는데, 이 녀석은 그냥 “저기야” 하고 친절하게 손가락질을 해주는 셈이었다.

나는 조종간을 꺾어 다이아몬드를 HUD 중앙에 맞췄다. 남은 거리(Miles)와 도착 예정 시간(ETA)까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왔다. 이젠 마치 치트키를 쓴 기분이었다.

3. 비행기의 영혼 (Flight Path Marker)

“잠깐! 카야, F-16 심벌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알려주지. HUD 가운데에 있는, 날개 달린 작은 동그라미 보이냐? (-o-) 이렇게 생긴 거.”

“네, 기수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게 ****FPM(Flight Path Marker, 비행 경로 마커)****이라고 한다. 그 위쪽에 있는 십자가(Gun Cross) 심벌은 비행기 머리가 향하는 곳이고, 저 동그라미 FPM은 비행기가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방향이다.”

“비행기 머리가 향하는 곳이란 실제로 가는 곳이 다르다고요?”

“응, 예를들어 옆바람이 불 때 비행기는 게처럼 옆으로 밀리면서 날아가니까. 조종사는 비행기 머리를 보지 않아. 오직 저 FPM, ****비행기의 영혼****이 가리키는 곳만 믿는다. 저 동그라미가 산에 걸려 있으면, 곧 산에 충돌하는 거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BF-109가 본능적인 ‘감’으로 하는 비행이었다면, F-16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며(Visual) 나는 과학적인 비행이었다.

4. 마법의 미니맵 (MFC)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아래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봐.

거기엔 내 비행기 위치와 경로, 아군기와 적군기 위치까지 게임 속 미니맵처럼 표시되어 있었다.

“와... 이거 사기 아닙니까? 길 잃어버릴 일은 절대 없겠네요.”

“편하다고 뉘 놓고 있다가 미사일에 맞기 딱 좋지. 위협이 많아진 만큼 정보도 많고 그만큼 판단력도 빨라야 해. 자, 다이아몬드가 가까워졌다. 이제 슬슬 착륙 준비를 해야겠지?”

이제 나는 친절한 녹색 유령(HUD)들이 알려주는 정보를 읽으며, 활주로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BF-109의 아날로그 낭만은 없었지만, 놀라운 디지털 기계의 정확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유튜브 댓글창]



Navi_Kim: BF-109 타다가 F-16 타면 진짜 눈이 개운한 느낌임. 다이아몬드만 따라가면 집이 나옴 ㅋㅋ



FPM_Ghost: 초보자 팁: 착륙할 때 활주로 끝단에 FPM(동그라미)만 올려두면 자동 착륙임. 진짜 FPM은 신이다.



MiniMap: HSD 보느라 고개 숙이고 있다가 산에 박은 1인... 전방 주시 잘합시다 ㅠㅠ



HUD_Tech: 저 녹색 글씨들이 처음엔 어지러운데, 익숙해지면 저거 없인 비행 못 함.

[Chapter 5] 활주로에 키스 (Landing)

1. 멈추지 않는 총알

“전방에 활주로 확인.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 떨어졌다.”

저 멀리 회색 활주로가 보였다. 이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었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스로틀을 다 줄였는데도 기체는 미끄러운 얼음 위를 달리듯 300노트(약 550km/h)를 유지하고 있었다.

“씨겔 님, 속도가 안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면 활주로를 지나칠 것 같은데요?”

“F-16은 공기 역학적으로 너무 매끈해서 그래. 저항이 없으니까 총알처럼 날아가지. 그럴 땐 억지로 저항을 만들어야 한다. **스피드 브레이크(Speed Brake)**를 펼쳐!”

나는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에어브레이크 스위치를 뒤로 당겼다.

쿠우우웅—!

꼬리 날개 양옆이 조개껍데기처럼 벌어지며 거대한 공기 저항이 생겼다.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속도가 푹 떨어졌다.

“기어 다운(Gear Down)! ”

착륙 바퀴를 내렸다.

2. 녹색 바구니에 영혼을 담아라 (AOA)

“자, 이제부터는 받음각이 중요하다.”

“네? 무슨 각이요?”

“제트기는 착륙할 때 **받음각(AOA, Angle of Attack)**이 생명이다. HUD 왼쪽에 ‘ㄷ’자 모양의 괄호 보이냐?”

“네, 보입니다.”

“그게 **’AOA 브래킷(Bracket)’**이다. 바이퍼 착륙 훈련은 아까 배운 ‘비행기의 영혼(FPM 동그라미)’을 저 ‘ㄷ’자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

BF-109는 감으로 기수를 들었다 놔다 했는데, F-16 착륙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기수를 들면 FPM이 내려가고, 기수를 숙이면 FPM이 올라간다. 나는 미세하

게 스로틀을 조절하며 FPM을 괄호 중앙에 맞추며 비행했다.

“그렇지! FPM 위쪽에 **주황색 도넛(O)** 불이 들어오면 완벽한 착륙 각도(On Speed)라는 뜻이다.”

3. 활주로에 키스

활주로를 눈앞으로 다가왔다.

“FPM을 활주로 입구(Threshold)에 고정해. 시선을 떼지 마.”

나는 FPM 동그라미를 활주로 앞쪽 피아노 건반 같은 페인트칠 위에 겹쳐 놓았다. 기체는 마치 레일 위에 얹힌 듯 흔들림 없이 하강했다. BF-109처럼 덜덜거리거나 옆으로 밀리는 일은 없었다.

“지면 접근! 스로틀 아이들(Idle)! 살짝 당겨(Flare)!”

나는 부드럽게 조종간을 당겼다.

쿵.

뒷바퀴가 닿는 충격이 엉덩이로 전해졌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4. 윌리 주행 (Aerobraking)

“앞바퀴 내리지 마! 기수 계속 들고 있어! 기수각 13도 유지!”

BF-109라면 당장 꼬리를 내렸겠지만, 초음속의 F-16은 달랐다. 뒷바퀴만 닿은 상태에서 기수를 쳐들고 활주로를 달렸다. 마치 오토바이로 ****윌리(Wheelie)****를 하는 기분이었다.

“기체의 몸통 전체를 브레이크로 쓰는 거다. 에어브레이크처럼 공기 저항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

속도가 100노트 이하로 떨어지자 기수가 저절로 무거워지며 내려왔다.

툭.

앞바퀴가 닿았다. 그제야 나는 휠 브레이크를 밟아 기체를 멈춰 세웠다.

“정지 완료.”

무사히 착륙했다는 안도감에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야생마를 힘으로 누르는 착륙이 아니라, 계산된 데이터에 의한 정밀한 착륙이었다.

“나이스 랜딩. 아주 부드러운 키스였다, 카야.”

[유튜브 댓글창]



Donut_Lover: AOA 브래킷에 주황색 도넛(O) 딱 뜰 때 쾌감... 역시 F-16.



AirBrake: 뉴비들 특: 착륙하자마자 앞바퀴 쿵 내려찍음. 그러다 서스펜션 나갑니다 ㅋㅋ 에어로 브레이킹 필수!



Precision: FPM을 활주로 끝에 맞춘다는 개념만 알면 착륙 쉬워짐. BF-109 착륙하다가 이거 하니까 세상 편함.



Speed: 근데 착륙 속도가 150노트(270km/h)면 KTX 속도로 땅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ㄷㄷ

[Intermission] 구름 위의 산책 (Free Flight)

1. 무장 해제

“자, 오늘의 훈련은...”

씨겔 교관의 목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긴장시켰다. 다음 훈련은 뭘까? 이제 미사일 쏘려나?

“없다.”

“...네?”

“오늘은 훈련 없다. 무장도 다 떼어냈다. 연료만 가득 채웠지(Full Tank). 그냥 따라와.”

활주로에는 미사일 하나 없이 매끈한 몸매를 드러낸 F-16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날개 끝에 달린 건 무기가 아니라, 하얀 연기를 내뿜는 ‘스모크 와인더 (Smoke Winder)’ 였다.

2. 매직 아워 (Magic Hour)

이륙하자마자 시간 설정이 바뀌었는지, 하늘이 온통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해 질 녘, 비행사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매직 아워’ 였다.

“고도 2만 피트 유지. 편대 대형 풀고 자유롭게 날아봐.”

나는 긴장을 풀고 스로틀을 부드럽게 밀었다. 발아래 숨이불처럼 깔린 구름 위로 붉은 석양이 비스듬히 쏟아졌다. 조종석 유리창이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복잡한 계기판의 불빛들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은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다. 적을 찾으려 눈에 불을 켜고 봤던 그 회색 하늘이 아니었다. 실수할까 봐 죽기 살기로 AOA 맞추던 그 삭막한 착륙 훈련도 아니었다. 그저 눈물 나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바다 위의 항해였다.

3. 우리가 나는 이유

“카야, 계기판 보지 마. 밖을 봐.”

씨겔의 기체가 내 옆으로 부드럽게 다가왔다. 그의 헬멧 바이저에 붉은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힘든 훈련을 버티는지 아나? 애국심? 명예? 물론 그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는 기체를 배면 비행(뒤집기)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다.

“지금 보는 풍경 때문이다. 신(God)만이 볼 수 있는 이 뷰(View). 세상 그 누구

도 볼 수 없는 하늘 위의 세계를 사는 것. 그게 하늘을 나는 이유다.”

나도 그를 따라 기체를 뒤집었다. 거꾸로 된 머리 위로 구름바다가 흐르고, 지상의 도시들이 반딧불이처럼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다. 땅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하늘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다.

4. 스모크 온 (Smoke On)

“자, 캔버스에 그림이나 한번 그려볼까? 스모크 온!”

치이이익—

우리 두 대의 꼬리 날개에서 굵은 하얀색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우리는 서로 꼬리를 물며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하늘 높이 솟구쳐 거대한 하트 모양을 그리기도 했다.

슈퍼컴퓨터? 그런 건 필요 없었다. 그저 옆에 있는 동료의 날갯짓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같이 춤을 추면 그만이었다.

29,000파운드의 추력이 뿜어내는 엔진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웅장한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VR 헤드셋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나는 지금 6평방 안이 아니라, 진짜 꿈 속처럼 푸른 태평양의 어디쯤을 날고 있었다.

5. 내일을 위한 재충전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힐 때쯤 우리는 기지로 돌아왔다. 착륙하고 캐노피를 여는데, 차가운 밤공기가 훑 들어오는 착각이 들었다.

“어때, 머리가 좀 시원해졌지?”

헬멧을 벗은 씨겔이 웃음을 보냈다.

“응, 제트 비행기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

나는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다행이네. 그 마음 잊지 말고. 내일부터 배울 공대공 전투는 머리가 터질 만큼 복잡할 테니까. 이 아름다운 하늘을 지키려면, 바이퍼의 무기도 알아야겠지.”

그래, 까짓것 해보자. 이 멋진 하늘을 날 수만 있다면, 매뉴얼 100페이지쯤은 더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유튜브 댓글창]



Sunset_Rider: 와... 그래픽 실화냐? DCS가 원래 이렇게 예뻐요? 맨날 미사일 피하느라 땅만 봐서 몰랐네...



Bob_Ross: 카야 님 스모크로 그림 그리는 거 예술이네요. “참 쉽죠?”



Wingman: 오늘 영상은 힐링 그 자체 ㅋㅋ 전투기 훈련 영상 보러 왔다가 감성 충전하고 갑니다.



Coffee_Break: 진짜 비행 뽕 차오른다... 나도 오늘 퇴근하고 힐링 비행 해야

지.

[Chapter 6] 신의 눈 (Radar & RWR)

1. 장님 비행

“자, 이제부터는 눈을 믿지 마라.”

씨겔 교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뮬레이션 환경이 급변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두꺼운 구름으로 뒤덮였고, 가시거리는 코앞도 안 보일 정도로 짧아졌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적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싸웁니까?”

“그래서 현대 전투기를 ‘시스템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눈은 5km 밖의 적도 보기 힘들지만, 이 녀석은 80km 밖의 파리도 찾아낸다. 왼쪽 디스플레이(MFD)를 봐. 그게 너의 ‘제3의 눈’이다.”

2. 어둠 속의 손전등 (FCR Radar)

나는 왼쪽 전자장비 화면의 스위치를 눌러 사격통제 레이더 (FCR, Fire Control Radar)를 켜다. 녹색 막대기(B-Sweep)가 부채꼴 모양으로 좌우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레이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것과 같다. 동굴속의 박쥐처럼 전파를 쏘고, 그게 허공에 있을 적기에 맞고 튕겨 나온 걸 잡는 거지.”

“아... 어! 화면에 작은 네모가 떴습니다!”

“그걸 ‘컨택(Contact)’이라고 부른다. 레이더가 무언가를 잡았다는 뜻이지. 조종간의 레이더 커서(Cursor) 버튼 움직여서 그 네모 위에 올려놓고 조종간의 ‘TMS Up’ 버튼을 눌러봐.”

딸깍. 단순한 네모였던 표식에 숫자가 떴다. 고도 25,000피트, 속도 400노트.

“레이더에 잡힌 미확인 비행체는 고도 25,000피트에 있고 속도는 400노트로 비행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 눈으로는 절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먼 거리의 목표물 정보들을 보여준다. 이제 넌 구름 뒤에 숨은 적의 고도와 속도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신(God)이 된 거야. 정확히 말하면 과학기술의 힘이지.”

3.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RWR)

그때였다. 갑자기 헤드셋에서 소름 끼치는 전자음이 울렸다.

디리릭! 디리릭!

전방 HUD 왼쪽, 동그란 화면(RWR)에 '29'라는 숫자가 뜨며 노란 불이 들어왔다.

“오옷! 교관님,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고장 났나요?”

“아니,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 Radar Warning Receiver)가 울린 거다. 너가 레이더로 적을 찾듯이, 적군도 너를 레이더로 찾고 있다는 뜻이야.”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딘가 어둠 속에 숨은 적

(MiG-29)이 나를 찾고 있다는 공포감.

“졸지 마. 저 소리는 일종의 ‘스파이더 센스’ 다. 적이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어. 12시 방향에서 숫자가 뜨지? 그럼 정면에 적이 있다는 뜻이다.”

4. 친구인가 적인가 (IFF,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그런데 교관님, 레이더에 잡힌 저 비행기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무턱대고 쏘다가 아군이면 큰일 나잖아요.”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피아식별장치(IFF)라는 장비도 들어있다. 조종간의TMS Left 버튼을 길게 눌러봐.”

내가 버튼을 누르자, 레이더 화면의 네모 표식에 잠시 후 녹색 동그라미가 떴다.

“녹색 동그라미는 아군이다. 만약 아무 반응이 없거나 붉은색 표시가 뜨면? 그건 위협적인 놈(Bandit)이다.”

“와... 진짜 게임 같네요. 아니, 게임 같은 현실?”

“명심해. 현대 공중전은 서로 얼굴 보고 주먹질하는 게 아니다. 누가 먼저 보고 (First Look), 먼저 쏘느냐(First Shot)의 싸움이다.”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시즌2의 화려한 기동술이나 사격술보다, 이 녹색 화면의 점 하나가 내 생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럼, 누가 더 고성능 컴퓨터와 무기를 탑재한 전투기를 타는가에 승률이 달려 있겠네요?”

[유튜브 댓글창]



Radar_Gosu: 뉴비들 특: 레이더 화면에 점 떴다고 흥분해서 쫓아가면 안 됨 ㅋㅋ (팀킬 주의)



Spooky_Sound: RWR 소리 처음 들으면 진짜 공포 그 자체임. 특히 미사일 날아올 때 소리는... 트라우마 생김.



Spider_Man: RWR은 진짜 스파이더 센스 맞음. “찌리릿!” 소리나면 바로 머리 카락 곤두섬.



Green_Screen: 레이더 화면만 보고 싸우는 거 지루할 줄 알았는데, 아는 만큼 긴장감과 재미 쏠쏠.

[Chapter 7] 방울뱀 소리 (AIM-9 Sidewinder)

1. 영화 탑건 (Top Gun)

“카야, 전투기 영화 보고 온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

“미사일 어떻게 쏘요? 아닐까요?”

“그래. 오늘부터 미사일 쏘는 훈련을 시작한다.”

2. 안전장치 해제 (Master Arm On)

“자, 전방 10마일 지점에 표적기가 있다. 레이더로 확인했지?”

“네, 붉은색 삼각형 표적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투의 시작은 안전장치 해제부터다. 왼쪽 패널에 있는 ‘마스터 암(MASTER ARM)’ 스위치를 올려.”

딸깍.

계기판에 ‘무장 허가(ARM)’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제부터 발사 버튼을 누르면 진짜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뜻이다. 손에 땀이 배기 시작했다.

“그다음, 조종간의 ‘DGFT(Dogfight)’ 버튼을 눌러. 그러면 비행기가 즉시 ‘공중전투 모드’로 전환한다.”

3. 굼주린 뱀의 울음소리 (The Growl)

내가 버튼을 누르자 HUD 화면이 전투 모드로 바뀌었다. 그리고 헤드셋을 통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르...

“이... 소리는 또 뭐니까? 음산한데요?”

“이건 미사일이 우는 소리다. 날개 끝에 달린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깨어나서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지. 이 녀석은 열(Heat)을 먹고 산다.”

“열을 먹는다고요?”

나는 고개를 돌려 날개 끝에 매달린 AIM-9 미사일을 보며 말했다.

“그래. 적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을 쫓는 열추적 미사일이야. 적기의 꼬리를 잡아야(Tail bite)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배기열이 나오는 엉덩이가 가장 뜨겁거든.”

4. 락온 (Good Tone)

나는 표적기의 뒤쪽으로 조심스럽게 기동했다. HUD 화면 중앙의 조준원(Reticle) 안에 적기를 집어넣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미사일의 추적센서(Seeker)가 적기의 엔진 열을 감지했다.

그르르르... 뽀뽀! 뽀이이이이이익!!

낮게 깔리던 울음소리가 갑자기 찢어질 듯한 고음으로 바뀌었다.

“지금이야! 뱀이 먹잇감을 물었다! 이걸 조종사들은 ‘굿 톤(Good Tone)’이라고 한다.”

“소리가 엄청 시끄럽네요!”

“놓치지 마! 지금 쏘지 않으면 적기가 도망간다. 발사 버튼(Weapon Release)을 눌러!”

5. 여우 두 마리! (Fox Two)

나는 발사 버튼을 꺾 눌렀다.

“폭스 투(Fox Two)!”

슈아아앙—!

왼쪽 날개 끝에서 하얀 연기 꼬리를 그리며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튀어 나갔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꼬불꼬불하며 적기를 향해 날아갔다.

시즌2의 BF-109 기총 사격과는 다른 차원의 전투였다. AIM-9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적기 꿈무니로 빨려 들어갔다.

6. 격추 (Splash)

콰아앙!

먼 하늘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다. 표적기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구름 아래로 힘없이 떨어졌다.

“명중(Splash One)! 잘했다, 카야. 첫 격추를 축하한다.”

“와... 진짜 순식간이네요. 내가 한 거라곤 **무장 허가**하고 **미사일 선택**하고 **소리 듣고**, **발사 버튼** 누른 게 다인데...”

“그게 **현대 전쟁**의 무서움이지.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지금은 쉬웠지만, 적이 마주 보고 달려오면 미사일이 빗나갈 수도 있어. 100% 명중이란 건 없어. 적기도 살려고 기동을 하거든.”

“사이드와인더... 꼬리에 **소리** 나는 그 방울뱀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마스터 암 스위치를 꾀었다. 귓가에는 여전히 뱀의 날카로운 울음소리(Tone)가 맴돌고 있었다.

[유튜브 댓글창]



Snake_Eater: 그르르르... 하다가 빼이익! 소리 날 때 쾌감 찢지 않음? ASMR로 듣고 싶다.



Fox_Hunter: 군사 용어: ‘Fox 2’는 열추적 미사일 발사하며 조종사가 외치는 말임.



Heat_Seeker: 사이드와인더가 진짜 물건이지. 태양 보고 쏘면 태양 쫓아가는 거? ㅋㅋㅋ 잘 싸야 함.



Dogfight: 와 미사일 나가는 연기 리얼하네. 발사하고 무기 카메라로 적기 터지는 거 보면 스트레스 다 풀림.

[Chapter 8] PC방 탐견 (Friendly Match)

1. 참새들의 방앗간

“아우, 머리아...”

VR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나는 동네 단골 PC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라면 냄새와 기계식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반겨주었다. 카운터에는 익숙한 얼굴, 티타 님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어? 카야! 오랜만이네? BF-109 훈련 평가 때 에이스였다며? 어째, 요즘 안 보인다 했다?”

티타 님은 시즌 1 때 내게 경비행기 앱 세팅부터 장비 설치까지 도와줬던 비행 가이드였고, 이곳 ‘타이탄 PC방’의 사장님이다. 하지만 본업은 PC방 운영보다 가게 안쪽에 있는 시뮬레이터 장비로 F-16을 타는 ‘항덕(항공 덕후)’매니아였다. 이젠 친해져서 그냥 형이라 부른다.

2. FM 교관 vs 고인물 사장님

“형, 나 요즘 F-16 배워요. ‘씨겔’이라는 교관한테 배우는데... 와, 진짜 사람이 너무 FM이에요.”

나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며 투덜거렸다.

“맨날 ‘확인해라’, ‘복창해라’, ‘절차 지켜라’... 숨 막혀 죽겠어요. 시동 켜는 데만 한 시간 걸린다니까요? 솔직히 좀 노잼이에요.”

내 하소연에 티타 형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원래 F-16이 날개 달린 컴퓨터잖아. 씨겔 님이 제대로 가르치는 거네. 야매로 배우면 나중에 멘붕온다.”

“그래도 너무 딱딱하다고요. 낭만이 없어요, 낭만이.”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데?”

“이제 겨우 이착륙 떼고, 오늘 사이드와인더(AIM-9) 쏘는 법 배웠어요. 미사일 똥똥거리는 거 크게 들어서 귀 먹는 줄 알았다니까요.”

3. 준비된 도발

“오? 사이드와인더? 그럼 이제 ‘독사’ 흉내는 좀 낸다는 거네?”

티타 형의 눈빛이 장난기 가득하게 변했다. 그는 턱짓으로 구석에 있는 자신의 전용 좌석, 일명 ‘사장님석’을 가리켰다. 거기엔 고가(High-end)의 비행 장비가 놓여 있었다.

“야, 손님도 없는데 오늘 한 판 붙자. 배운 거 써먹어야지.”

“네? 형이랑요? 형 비행 시간만 3천 시간 넘잖아요. 양민 학살하게요?”

“에이, 조종간잡은 지 오래야. 난 미사일 없이 기총으로만 할게. 넌 미사일 달고 해. 진 사람이 라면 쏘기, 쿨?”

라면 내기라는 말에 승부욕이 확 올라왔다. 게다가 며칠 전 배운 사이드와인더는 조작이 간단해서 해볼 만할 것 같았다.

“좋아요. 오늘 배운 ‘폭스 투!’매운맛 좀 보여드리죠. 지갑 딱 준비해요.”

4. 복습: 미사일 쏘는 절차

우리는 로컬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하늘에서 만났다.

시뮬레이션 로딩이 끝나자마자 나는 반사적으로 오늘 배운 절차를 되뇌었다.
'자, 피나는 기동 훈련으로 꼬리 무는 건 나도 잘하니까 침착하자. 미사일은 씨겔이 알려준 대로만 하면 되고.'

[체크리스트 복습]

1. **Master Arm ON:** 왼쪽 패널의 무장 스위치 딸깍. (안전장치 해제 완료)
2. **Dogfight Mode:** 조종간의 DGFT 스위치 딸깍. (공중전투 모드 전환)
3. **Volume Up:** 미사일 추적음 소리 키우기.

그르르르르...

헤드셋에서 허기진 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는 끝났다.

5. 꼬리를 잡아라

“카야, 12시 방향! 간다!”

티타 형의 F-16이 순식간에 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엄청난 속도였다. 나는 급하게 조종간을 꺾고 최적의 선회 속도로 그를 쫓았다.

‘천천히. 꼬리를 잡으면 돼. 엔진 열만 잡으면 끝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티타의 선회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오... 카야? 기동이 날카로운데?”

점차 선회각이 좁혀지자 티타 형은 속도를 올려 거리를 벌리려고 했다. 드디어, HUD 중앙에 있는 조준원(Reticle)에 들어왔다. 거리가 좁혀지자 미사일 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르르르... **뽀! 뽀이이이이이익!!!**

“잡았다! 굿 톤(Good Tone)!”

찢어질 듯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렸다. 씨겔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카야, 지금이야!’

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발사 버튼을 꺾 눌렀다.

“딱 걸렸어! 폭스 투(Fox Two)!”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나의 허기진 방울뱀이 쏠살같이 티타의 F-16을 향해 쇄도했다.

[유튜브 댓글창]



Ramen_Bet: 사장님이랑 라면 내기? 이걸 못 참지 ㅋㅋ 티타 님 등장 반갑네요.



PC_Bang: 와 PC방에 F-16 장비가 있다고? 저기 어디냐 당장 간다.



Fox2_Review: 투덜거리면서도 배운 마스터 암, 도그파이트 모드 바로 써먹는 카야 천재네 ㅋㅋ



Seagal_Fan: 씨겔 교관의 의문의 1패... “노잼이라니!” 도끼는 뜨고 하실 듯.

[Chapter 9] 낚였다! (Flare & Overshoot)

1. 불꽃놀이 (Flares)

“폭스 투!”

내 F-16의 날개 끝을 떠난 사이드와인더가 하얀 궤적을 그리며 티타 형의 꿈무니로 빨려 들어갔다. 거리는 1마일. 이걸 누가 봐도 명중이었다.

“게임오버! 맛있는 라면은 형이 사는...”

그 순간이었다. 티타 형의 전투기에서 눈부신 불덩어리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팡! 팡! 파파팡!

“어? 저게 뭐야?”

티타 형이 뿌린 고열의 기만체, ‘플레어(Flare)’였다. 굼주린 열추적 미사일은 전투기 엔진 열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마그네슘 불꽃놀이에 홀려버렸다. 내 미사일은 티타 형이 쏘아 올린 허공의 불꽃 덩어리 속으로 뛰어들었다.

콰앙!

허무하게 터져버린 폭발음.

“야, 뉴비. 요즘 뱀들은 엉덩이 보다 불꽃놀이를 더 좋아하거든?”

2. 급브레이크 (Airbrake)

“아직 안 끝났어요!”

미사일은 빗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티타 형의 꼬리를 물고 있었다. 나는 스톱틀을 최대한 밀어 넣으며 바짝 추격했다. 기관포 사거리까지 좁혀서 끝장을 볼 생각이었다.

“에이스의 사격 맛을 보여...”

그때, 티타의 F-16 꼬리 날개 양옆이 꺾히고 벌어졌다. 에어브레이크(Speed Brake)였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슈퍼카처럼, 티타 형의 기체가 허공에 딱 멈춰 선 듯 급감속했다.

“으헉!”

빠르게 접근하던 나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 순식간에 내 전투기가 티타 형의 전투기를 앞질러 튀어 나갔다.

“오버슛(Overshoot)! 낚였구나, 카야!”

3. 공수가 바뀌다 (The Reversal)

“뒤를 봐~ 안녕?”

티타 형의 웃음소리가 헤드셋을 때렸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체를 나선형으로 비트는 기동으로 내 뒤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상황은 1초 만에 역전되었다. 방금 전까지 사냥꾼이었던 내가, 이제는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형! 잠깐만요! 이건 반칙이죠!”

“전장에 반칙이 어딴냐? 자, 엉덩이 대라.”

4. 드르륵 (Gun Kill)

내 RWR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려 댔다. 하지만 이번엔 미사일 소리가 아니었다.
두두두두두!

티타 형의 기수 왼쪽에 달린 M61 20mm 발칸포가 불을 뿜었다. 전기톱으로 쇠를 자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캐노피 너머로 붉은색 예광탄 줄기가 비 오듯 쏟아졌다.

“으악! 살려주세요!”

퍼퍼빅!

내 오른쪽 날개가 찢겨 나갔고, 조종석 화면은 꺼져버렸다. 나는 화염과 함께 추락하는 내 F-16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5. 수업료는 라면 한 그릇

“으아아...”

나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며 VR 헤드셋을 벗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마지막 화면 속엔 콜사인 TiTa의 F-16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때? 미사일 달고 기관총 맞은 기분이?”

티타 형이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킬킬거렸다.

“와... 진짜 잘하네요. 플레어 뿌리고 급브레이크에... 영화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어. 그리고 플레어도 만능은 아니야.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거든. 회피 기동은 살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야. 마지막 순간에 믿을 건 빠른 판단력과 조종술이겠지.”

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지갑을 꺼냈다.

“알았어요. 라면 쓸게요. 근데 형, 그렇게 미사일도 안 맞고 요리조리 피하는 적은 어떻게 잡아요?”

“최선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추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 이제 방울뱀 미사일 말고, 진짜 무서운 놈을 알려줄게. 라면 식기 전에 먹고 가시거리 밖 교전(BVR)에 대해 얘기해 줄게.”

[유튜브 댓글창]



Fishing_Master: 와... 플레어 뿌리고 에어브레이크 열고 배럴 롤(Barrel Roll) 기동하는 거 보소. 티타 고인물 인정 ㄷㄷ



Top_Gun: “I’ll hit the brakes, and he’ll fly right by.” 이거 완전 매버릭이네

ㅋㅋ



Gun_Kill: 미사일 시대에 기총으로 격추당하면 진짜 굴욕인데 ㅋㅋ 멘탈 바사삭.



Flare_Dance: 뉴비 팀: 카야 님! 기초전투기동(BFM) 훈련도 꼭 배우세요. 미사일 다 떨어지면 손가락만 빨 겁니까?

[Chapter 10] 중거리 미사일 (AIM-120 AMRAAM)

1. 여우 세 마리! (Fox Three)

“훈련생 카야,라디오 체크(Radio Check)!“

헤드셋 너머로 들려오는 **씨걸(SeaGAL)** 교관의 음성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며칠 전 PC방에서 말았던 고소한 라면 냄새와 티타 형의 장난기 어린 웃음소리는 온데 간데없었다.

디지털 계기판의 불빛과 제트 엔진 소음만이 감도는 VR 훈련 구역. 나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네! 교관님. 잘 들립니다.”

“좋다. 저번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오늘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AMRAAM)** 운용 훈련을 실시한다. PC방에서 연습은 좀 하고 왔나?”

뜨끔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아... 네. ‘파이어 앤 포겟(Fire & Forget)’ 개념 정도만 듣고 왔습니다.”

“훗. ‘쏘고 잊어버린다...’ 게이머들이나 좋아할 표현이군. 파일럿은 미사일이 명중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 상황을 잊어선 안 된다. 전투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해.”

2. 레이더의 눈 (무장운용레이더, FCR)

“마스터 암(Master Arm) 스위치 ON. 공대공 모드 선택.”

나는 익숙하게 조종간의 버튼을 눌렀다. HUD 화면에 큼직한 원형 조준선이 생겼다.

“왼쪽 디스플레이(MFD)를 보라. 그게 천리안이다.”

검은 화면에 초록색 각도기 모양의 부채꼴이 그려져 있고, 하얀 점 하나가 위쪽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전방 30마일, 고도 20,000피트에 적기가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오직 레이더만 볼 수 있지. 커서(Cursor)를 움직여 목표물을 ****지정(Lock-on)****해라.”

나는 조종간에 있는 레이더 커서 버튼을 움직여 커서를 하얀 점 위에 올렸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TMS Up(Target Management Switch Up)** 버튼을 딸각, 하

고 한 번 눌렀다.

“클릭(지정)했습니다!”

“좋아, 이제 미확인 표적을‘주목’한 상태다. 한 번 더 눌러서 표적을 확실하게 물어.”

딸깍.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자, 하얀 점이 붉은색 삼각형으로 바뀌며 화면에 딱 고정되었다. 전방 유리창의 HUD 화면 위에도 네모난 **타겟 박스(Target Box)**가 생겼다. 그리고 표적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됐다.

3. 발사 가능 구역 (DLZ)

“적기 락온(Lock-on) 완료. 이제 쏘면 됩니까?”

당장이라도 발사 버튼을 누르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렸다.

“기다려. HUD 화면 오른쪽을 봐라. 사다리 같은 눈금에 막대기가 보이지?”

“네, 보입니다.”

“그걸 **DLZ(Dynamic Launch Zone)**라고 한다. 미사일이 명중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여주는 거야. 사다리 눈금에 ‘>’ 표시는 미사일이 도달하는 거리를 표시해.”

티타 형은 그냥 “네모 뜨면 일단 쏘!”라고 했지만, 씨겔 교관은 달랐다. 산수 선생님처럼 꼼꼼했다. 잠시 후, 적기가 가까워지자 ‘>’ 표시가 유효 사거리 막대 안으로 들어왔다. HUD 화면 중앙에 **‘SHOOT’**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렸다.

“슛 큐(Shoot Cue) 떴습니다!”

“발사!”

4. 폭스 쓰리! (Fox Three)

나는 무장 발사 버튼(Pickle Button)을 길게 눌렀다.

“폭스 쓰리(Fox Three)!”

쉬이익—!

기체 오른쪽 날개 밑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갔다. 목직한 암람 미사일이 꼬리에 불을 붙이며 음속을 돌파해 나갔다. 사이드와인더가 ‘슈슈’ 하고 나가는 느낌이라면, 암람은 ‘슈우욱!’ 하고 길고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느낌이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저 멀리 점이 되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암람 미사일에는 자체 레이더가 있다. 스스로 레이더를 켤 때까지(Pitbull), 네가 레이더로 계속 적을 비춰줘야 해. 기수를 돌리지 마라.”

“하... 뭐가 이리 복잡해요?”

“F-16에 탑재한 레이더는 고성능이지만 미사일은 소형 레이더야.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거리까지 **안내를 하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될 거야.”

HUD 오른쪽 하단에 타이머가 표시됐다. ‘A 15’. 미사일이 스스로 활성화(Active)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5. 핏볼 (Pitbull)

15초라는 시간이 15분처럼 느껴졌다. 적기는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만약 저쪽도 미사일을 쏘았다면, 나는 지금 꼼짝없는 표적인 셈이었다.

05... 04... 03...

타이머가 0이 되는 순간, HUD의 표시가 '**T(Target)**'로 바뀌었다.

“핏볼(Pitbull)! 미사일 활성화됨!”

드디어 미사일이 목표물을 물었다.

“좋아. 미사일 시커(Seeker)가 눈을 떴다. 이제 스스로 사냥감을 쫓는다. 이제 넌 이탈해도 좋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쉬며 기체를 왼쪽으로 꺾었다.

6. 적을 알고 나를 알며 (지피지기)

잠시 후, 레이더 화면에 고정되어 있던 붉은색 삼각형이 'X' 표시로 바뀌며 깜빡이다가 사라졌다.

“스플래시(Splash). 표적 격추 확인.”

씨걸 교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다.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버튼 조작 몇 번으로 적기를 격추했다. 무기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지만 허무할 정도로 깔끔하고, 그래서 더 섬뜩했다.

“잘했어, 카야. 이것이 현대 공중전이다. 눈을 마주칠 필요도, 꼬리를 물려고 땀 흘릴 필요도 없지.”

“네... 생각보다 너무 순식간이네요.”

“잊지 마.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적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씨걸 교관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깔렸다.

“방금은 표적이었으니 가만히 있었지. 만약 적이 전투기였다면? 네가 쏘는 순간, 놈도 너한테 미사일을 날렸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어... 도망쳐야죠?”


“무작정 도망치면 죽는다. 살고 싶다면, 적을 알아야 해.”

[유튜브 댓글창]



Fox_Lover: 와... “폭스 쓰리!” 발음 굿!



Coupang_Man: 암람 배송 속도 실화냐?  주문(Lock-on)하고 30초 만에 격추 배송 완료 ㅋㅋ



BrainPilot: 티타 형은 ‘쏘고 잊어라’고 했지만 씨걸 교관님 말대로 ‘끝까지 유도’해주는 게 찐 실력임. 디테일 굿.



Ghost: 적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겠다.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

와서 꽃히다니...



DiamondHand: 버튼 하나로 10억짜리 미사일 날리는 기분... 짜릿해, 늘 새로워.

[Chapter 11] 미사일 회피 기동 (BVR Defense & Notching)

1. 죽음의 알람 소리

“오늘은 적 미사일을 회피하는 기동을 훈련한다. 전방 20마일, 적기(Bandit)가 너를 포착했다.”

씨겔 교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종석 내부에 경고음이 울렸다.

띠- 띠- 띠-

RWR(레이더 경고 수신기) 화면에 새로운 심볼이 떴다. 적이 나를 탐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식은땀이 흘렀다. 아까 내가 적을 조준할 때, 적도 나를 이렇게 찾고 있었겠구나.

“어... 교관님? 소리가 좀 빨라지는데요?”

“그래. 놈이 **넬락온(Lock-on)** 했으니까. 넓은 공역을 탐색하던 적 레이더가 이제부터는 너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경고음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로 바뀌었다.

위잉! 위잉! 위잉!

“미사일 발사(Missile Launch)! 놈이 쏘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VR인 걸 알면서도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창이 나를 향해 마하 4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2.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헐! 도망쳐야 해!”

나는 반사적으로 조종간을 당겨 기수를 돌렸다. 180도 돌아서 꿈무늬를 빼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멈춰! 뒤로 돌면 죽는다!”

씨겔 교관의 목소리가 커졌다.

“네? 도망가야죠!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미사일은 너보다 4배나 빠르다. 네가 도망쳐봤자, 금방 쫓아와서 네 등에 꽂힐 거다. 아주 먼 거리가 아니면 도망으로 피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해요? 그냥 맞아요?”

“**빔 기동(Beam Maneuver)**으로 회피해야 해. 네 전투기의 날개 쪽, 그러니까 3시나 9시 방향에 미사일을 뒤라. 쉽게 말해 미사일과직각(90도) 방향으로 회피한다!”

3. 투명 망토 (The Doppler Notch)

나는 급하게 조종간을 왼쪽으로 꺾었다. RWR에 표시된 미사일 심볼이 내 오른쪽에 오도록 기체를 선회했다.

“이걸 **'빔 기동(Beaming)'**이라고 한다.”

“옆으로 날면 미사일이 못 쫓아오나요?”

“하하! 아니. 쫓아오긴 하는데, 눈이 침침해지지.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 들어봤어?”

씨겔 교관이 웃으며 말했다. 이 와중에 과학 이론이라니. 하지만 살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미사일 레이더는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물체’를 표적으로 인식해. 산이나 건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걸러내지(Filtering).”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가 미사일을 옆에 두고 날아가면, 적 레이더 입장에서는 네가 다가오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니, 움직임이 거의 **'0'**이야.”

순간 머릿속에 전구 불이 켜졌다.

“아! 그럼 레이더는 나를... 멈춰 있는 물건으로 착각하나요?”

“정답이다. 적 미사일 레이더는 너를 ‘이건 비행기가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구름이나 산이구나’ 하고 무시해 버려. 이걸 레이더의 사각지대, **'노칭(Notching)'**이라고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투명 망토**를 쓰는 거지.”

“정말, 전자장비의 싸움이군요...”

4. 은박지 뿌리기 (Chaff)

“카야,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은 플레어로 유인했지만, 레이더 추적 미사일은 **채프(Chaff)**로 교란한다.”

“네!”

타이탄 PC방에서 티타 형이 해줬던 이야기가 기억났다. 나는 조종간에 있는 CMS(대응책) 버튼을 엄지로 밀었다.

푸슛! 푸슛!

기체 뒤쪽에서 수천 개의 미세한 유리섬유와 알루미늄 조각들이 구름처럼 흩뿌려졌다.

“채프를 뿌리면 미사일은 더 크고 반짝거리는 은박지 덩어리를 너라고 착각하게 된다.”

긴장되는 순간. 나는 숨을 죽이고 RWR 소리에 집중했다.

위잉... 위잉... 뚝.

거짓말처럼 경보음이 멈췄다.

5. 기하학의 승리

“미사일 기만 성공. 높은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체를 다시 수평으로 맞췄다. 열기 때문에 VR 헤드셋을 들고 선풍기 바람을 밀어 넣었다.

“와... 진짜 어렵네요. 옆으로 날면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다니.”

“가시거리 밖, 그러니까BVR 전투는 힘싸움이 아니라 전자장비와 기하학의 싸움이다.”

씨걸 교관은 냉정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명심해. 최신형 레이더는 노칭도 뚫어버릴 만큼 똑똑하다. 뭐든 망신하지 말고, 항상 최신의 지식과 에너지를 살려서적에게 대응해라.”

[유튜브 댓글창]



PTSD_On: 영상 보는데 RWR(경보음) 소리 때문에 식은땀 남;; ‘위잉!’ 소리는 언제 들어도 적응 안 됨 ㅠㅠ



Science_Teacher: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 배경 속에 숨는다.” 게임 방송 보러 왔다가 물리 공부하고 갑니다.



Iron_Wall: 노칭(Notching) 설명 기가 막히네요. 옆구리 내주고 배짱부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함!



Chaff_Fairy: 채프 뿌리면서 미사일 따돌릴 때 쾌감 미쳤다... 이게 바로 ‘회피 기동의 미학’이지.



Pretzel: 카야 님 멘탈 안 터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보소. 이제 초보 딱지 떼셔도 될 듯?

[Chapter 12] 3만 피트 상공의 키스 (Aerial Refueling)

1. 공대공 훈련을 마치고

“전투 훈련 종료. 마스터 암(Master Arm) OFF. 레이더 OFF.”

씨걸 교관의 지시에 나는 무장 스위치를 끄고 레이더도 켜다. 컷가를 때리던 RWR의 경고음도, MFD 화면의 복잡한 기호들도 사라졌다. 오직 바람을 가르는 소리(Wind noise)와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만이 남았다.

“후후...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기지로 복귀한다. 머리는 충분히 식혔으니, 카야 훈련생, 10시 방향을 봐라.”

구름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다. 여객기만큼 큰 덩치의 비행기가 느긋하게 하늘을 헤엄치고 있었다. 공중 급유기, KC-135 스트라토탱커(Stratotanker)였다.

“와... 진짜 크다. 고래 같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저 고래 뱃속에 있는 연료를 받아먹을 거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속 600km로 날면서 말이지.”

2. 하늘의 주유소

“준비되면 급유 요청해.”

먼저 급유를 마친 씨걸 교관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스톱틀을 조절하며 급유기 뒤쪽으로 접근했다. 거대한 기체가 내 시야를 가득 채웠다. 가까이 다가가자 급유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엔진 후류 때문에 내 F-16이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바이퍼가 출렁거려요!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겁먹지 마. 급유기 꼬리 날개에서 나오는 난기류(Wake Turbulence)다. 과감하게 뚫고 들어가서 급유 위치(Pre-contact position)를 잡아.”

주유봉 같은 긴 막대기인 ‘붐(Boom)’이 보였고, 그 뒤에는 투명한 창문이 보였는데, 그 안에서 ‘급유 통제사’가 엿드려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헐, 저기 사람이 있어요! 눈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 저 사람이 네 입에 빨대를 꽂아줄 거다. 너는**입만 벌리고 암전히 받아먹으면 돼.**“

3. 아기 새의 춤 (PIO)

“급유구(Refueling Port) 오픈.”

찰칵.

등 뒤의 급유구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제 급유기의 붐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더 붙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어? 어어?”

내가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 비행기가 널뛰기를 했다. 위로 솟구쳤다가, 놀라서 내리면 툭 떨어지고. 내 비행기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천천히! 조종간을 꼭 쥐지 마.”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 움직여요!”

“눈으로 보고 맞추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느끼면서 맞춰. 그리고 급유기 배 밑의 ****신호등(Director Lights)****을 봐.”

급유기 밑에는 빨강, 노란색 불빛이 깜빡이는 신호등이 있었다. 위아래(U/D), 앞뒤(F/A) 위치를 알려주는 가이드였다.

4. 붓을 쥐듯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건 미사일을 피하는 급기동이 아니다. 아주 얇은 선을 긋는 드로잉이다.

‘0.1mm의 오차도 없이... 붓끝으로 종이를 스치듯이...’

나는 스톱틀을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살짝살짝 건드렸

다. 아주 미세한 추력을 조절하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갔다.
거대한 붐(Boom)이 내 머리 위로 다가왔다. 붐 오퍼레이터가 붐을 조종해 내 급유구를 노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마치 첫 키스를 할 때처럼,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5. 컨택트 (Contact)

쿵.

묵직한 충격과 함께 기체가 급유기와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컨택트(Contact). 급유 개시.”

씨겔 교관의 차분한 목소리. 계기판의 RDY(준비) 불이 꺼지고 **AR(급유 중)**이라는 녹색 불이 들어왔다.

“성공이다! 기름 들어와요!”

“좋아. 이제 움직이지 마. 그대로 얼음. 숨도 쉬지 마라.”

나는 급유기와 똑같은 속도로 날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바로 머리 위 거대한 고래의 배가 보이고, 구름은 뒤로 빠르게 흘러갔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위험한 주유소였다.

기름이 차오르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미사일과 경보음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을 감상했다.

6. 완벽한 마무리

“급유 완료. 이탈해라(Disconnect).”

나는 조종간의 연결 해제 버튼을 눌렀다.

툭.

불이 내 등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얀 연료 가루가 안개처럼 흩날렸다. 나는 스톱틀을 줄여 부드럽게 급유기 아래로 빠져나왔다.

“잘했다. 미사일 쏘는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가지?”

“하... 진짜 온몸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묘하게 중독성 있는데요? 뭔가 힐링 되는 기분이에요.”

“섬세한 조작이었다. 그림 그리는 예술가라서 그런가, 손끝 감각이 살아있어.”

씨겔 교관의 드문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다. 나는 배부른 바이퍼의 충만함을 느끼며 다시 편대로 복귀했다.

3만 피트 상공에서의 공중 급유는 고래와 함께 바다를 유영하는 달콤한 휴식이었다.

[유튜브 댓글창]



Full_Tank: 솔직히 말해서 공중전보다 공중 급유가 100배 더 어려움. 인정?



Van_Gogh: 와...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 위에서 붓 터치 하듯이 조종

한다”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음.



Shaking_Hand: 보는 내내 숨참음 음음!



내 손에도 땀이 흥건하네 ㅋㅋ



Sky_Whale: 급유기(탱커) 덩치 진짜 크다... 저 뒤에 바짝 붙어서 나는 깡다구 리스펙트!



Love_Hurt: 첫 키스보다 떨어지는 표현... 연애 세포 살아있네 ㅋㅋㅋ 영상미 힐링 됩니다.

[Chapter 13] 영어가 안 들려요 (The Language Barrier)

1. 자신감 뒤에 찾아온 ‘영어 울렁증’

공대공 훈련을 성공적으로(비록 토할 뻔했지만) 마친 나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제 나도 F-16 파일럿이야. 암람도 쏠 줄 알고, 급유도 할 줄 아니까!”

나는 씨겔 교관의 품을 잠시 떠나, 인터넷 비행 커뮤니티에서 유명하다는 ‘F-16C 시나리오 캠페인 미션’을 다운로드받았다. 혼자서 영화 같은 스토리를 즐기며 실력을 뽐내볼 생각이었다.

“자, 드디어 실전 투입이다. 세계 평화를 지키러 가볼까?”

비장하게 ‘공대공 임무 편대’를 로딩하고 각뿔에 앉았다. 잠시 후, 헤드셋으로 다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다.

“Bravo 1, Pop-up threat! Break right immediately! SAM launch, 2 o'clock! Abort mission, I say again, Abort!”

“어...? 뭐? 팝업? 썸? 브레이크?”

나는 당황해서 눈동자만 굴렀다. 뭐라고 살라살라 떠드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콰광!

경보음이 울리기도 전에 내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MISSION FAILED : You ignored the order (명령 불복종)]

“아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야 피하든가 말든가 하지!”

2. VR 파일럿의 적은 ‘영어’였다

나는 억울함에 VR 헤드셋을 벗어던졌다. 비행 실력이 늘면 뭐 하나. 미션 브리핑도 영어, 관제탑 교신도 영어, 자막조차 깨알 같은 군사 영어다.

“하... 진짜 못 해 먹겠다. 비행 배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 공부까지 해야

해?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많은 VR 비행 입문자들이 비싼 장비를 사고도, 결국 이 ‘언어의 장벽’에 막혀서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게임을 접는다. 단순한 비행은 할 수 있지만, ‘상황’과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 몰입이 될 리가 없었다.

그때, 내 책상 위에 놓인 <메타파일럿 가이드북>이 눈에 들어왔다.

3. 미션 번역기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타파일럿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리고 [자료실]에서 배너 하나를 발견했다.

[Tool] 메타파일럿 전용: 미션 다국어 자동 번역기 (Auto Mission Translator)

복잡한 영어 미션 파일? 클릭 한 번으로 한글 자막 패치 완료!

“헐? 이런 게 있다고?”

설명은 간단했다. 내가 다운로드한 영어 미션 파일을 프로그램에 드래그 앤 드롭 (Drag & Drop)하고 ‘번역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이었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다운로드받은 캠페인 파일을 프로그램에 넣었다.

위잉- 척! [번역 완료]

“벌써 끝났다고? 10초도 안 걸렸는데?”

4. 한글 자막의 기적

나는 다시 VR 헤드셋을 쓰고, 방금 번역된 미션 파일을 실행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다급한 목소리의 영어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눈앞의 화면 하단에 선명한 한글 자막이 떴다.

“Bravo 1, Pop-up threat! Break right immediately!”

[자막] 브라보 1, 기습 위협 확인! 당장 오른쪽으로 급선회해!

“SAM launch, 2 o'clock! Abort mission!”

[자막] 2시 방향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임무 중지!

“아하!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오른쪽으로 튀라는 소리였구나!”

나는 자막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온 지대공 미사일이 내 왼쪽 날개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5. 200%의 몰입감

살았다. 그리고 이해가 됐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적들이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아군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한글 자막이 생기니 단순한 그래픽 덩어리였던 전투 비행 시뮬레이션이 한편의 전쟁 영화가 되었다.

“본부! 여기는 브라보 1. 미사일 회피했다. 다음 지시는?”

나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나게 대사를 읊으며 비행을 이어갔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짜릿했다.

6. 메타파일럿의 여정

비행을 마치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처음 이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가 떠올랐다. 수십만 원짜리 조종간이 없어서 포기하려 했을 때, 메타파일럿은 '**3D 프린터 도면**'을 쥐서 내 손에 꼭맞는 조종 장비를 만들게 해줬다.

그리고 오늘, 영어를 몰라 포기하려 했을 때, 메타파일럿은 '한글화 번역 도구'를 쥐여주며 다시 하늘을 열어주었다.

“사실적인 VR 항공기는 많지만, 초보자가 체계적으로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아닌, ‘당신’을 위한 이야기와 도구를 만듭니다.”

메타파일럿 교범의 첫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다. 단순히 비행 게임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었다. 누구나 파일럿의 꿈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활주로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씩 치워주고 있었다.

나는 또 다른 미션을 받아 '번역하기'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이제 두려울 게 없었다. 내 조종석에는 '한글'이라는 최강의 항전 장비가 탑재되었으니까.

[유튜브 댓글창]



King_Sejong: 와 대박... 미션 자동 번역기라니;; 엔지니어님 진짜 세종대왕이

세요? 잘 받으세요



English_Phobia: 영어 울렁증 때문에 튜토리얼만 1년째 하고 있었는데 꺾꺾 당장 다운받으러 갑니다.



Sim_Dad: 우리 아들한테 시켜주고 싶었는데 영어가 문제였거든요. 이제 같이 비행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Meta_Fan: 시즌 1에선 3D 프린터 조종간, 시즌 3에선 한글 번역기... 메타파일럿은 진짜 '진심'이구나.

[Chapter 14] 멧팅구리 폭탄의 미학 (CCIP Bombing)

1. 독수리에서 매로

“오늘부터는 공대지 훈련을 시작한다. 공중 전투는 잠시 잊고, 이제부터는 땅 위의 표적을 노리는 사냥꾼이다.”

씨겔 교관의 선언과 함께 VR 속의 풍경이 바뀌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황량한 사막의 훈련장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의 무장은 **Mk-82**. 500파운드(약 227kg)짜리 범용 폭탄이다.”

날개 밑을 확인해 보니, 둔탁하게 생긴 짙은 녹색 쇳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창처럼 날렵했던** 암람 미사일과는 확실히 다른, 무식하고 묵직한 포스가 느껴졌다.

“이걸 ‘멍텅구리 폭탄(Dumb Bomb)’이라고 부른다.”

“멍텅구리요? F-16은 슈퍼컴퓨터라면서 무기는 왜 바보를 써요?”

“이 폭탄은 **전자장비**가 없는 재래식 폭탄이라서 그렇다. 유도 장치가 없어서 투하하면 그냥 낙하한다. 하지만 걱정 마라. 비행기가 똑똑하니까.”

2. 죽음의 빨랫줄 (CCIP, Continuously Computed Impact Point)

“마스터 암 ON. 이번에는 **공대지(A-G) 모드** 선택.”

스위치를 누르자 HUD 화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복잡한 레이더 정보가 사라지고, 화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수직선 하나가 생겼다. 그리고 그 선 끝에는 동그란 원(조준원)이 달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꼭 빨랫줄 같은데.”

“그게 바로 **CCIP**다. F-16 컴퓨터가 현재 속도, 고도, 바람을 계산해서 ‘지금 폭탄을 떨어뜨리면 저기에 맞는다’고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다.”

“와... 시즌 2 프롭기 탈 땐 감으로 던졌는데, 이건 그냥 정답을 알려주네요?”

“그래. 넌 그저 빨랫줄(낙하선)을 표적에 일치시키고, **조준원(Pipper)에 표적이 들어올 때** 버튼만 누르면 된다.”

3. 다이브! (Dive)

“자, 훈련 시작!”

씨겔의 짧은 음성이 들렸다.

“목표 확인. 전방 2마일, 전차 대열.”

나는 전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사막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차 모형들이 보였다. 나는 HUD 화면의 폭격 수직선(빨랫줄)을 전차들이 있는 쪽으로 맞췄다.

“**강하(Dive) 시작!**”

나는 기수를 30도 각도로 숙여 전차들이 있는 땅으로 내리쫓았다. 고도가 떨어지면서 속도계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다. 400노트, 450노트... 지면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왔다.

나는 조종간을 미세하게 움직여 수직선을 전차 정중앙에 맞췄다. 그리고, 직선 끝에 달린 동그란 조준원(Pipper)이 천천히 표적을 향해 다가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조준원에 집중했다.

4. 피클! (Pickle!)

마침내 조준원이 전차를 완벽하게 감쌌다.

“지금이다! 투하(Pickle)!“

“밤즈 어웨이(Bombs away)!“

나는 조종간의 발사 버튼을 꺾 눌렀다.

퐁! 퐁!

기체 양쪽 날개에서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다. 무거운 쇳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자 비행기가 갑자기 가벼워지며 위로 쭉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이탈(Break)! 조종간 당겨!”

나는 곧바로 조종간을 배 쪽으로 당겨 급상승했다. 순간, 4G(중력가속도의 4배)의 고하중이 내 몸을 시트 안으로 짓눌렀다.

“으으으윽!”

신음과 함께 고개를 돌려 전차를 확인했다.

5. 쇳덩어리의 최후

콰-콰!!

잠시 후, 큰 폭발음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흙먼지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르며 전차 모형들을 집어삼켰다.

“명중이다. 아주 정확했어.”

씨걸 교관의 만족스러운 목소리.

“와... 대박!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데요?”

미사일이 ‘날아가서 꽃히는 맛’이라면, 폭탄은 ‘때려부수는 맛’이었다. 멍청한 폭탄이라더니, F-16의 똑똑한 두뇌와 만나니 스마트 폭탄 못지않은 저격수가 되었다.

“이게 바로 CCIP의 위력이다. 지상의 목표물에 정렬하고 하강하고, 그리고 조준원에 들어올 때 버튼을 누르면 된다.”

6. 엔딩: 스트레스 해소방

활주로로 복귀하는 길, 나는 날개 밑이 허전해진 F-16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여러분, 직장 상사나... 아니,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건물 주소를 저한테 말하세요. 제 F-16에 멍텅구리 이빠이신고 날려드릴게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물론, 버튼 누를 때 목청 다듬고 ‘밤즈 어웨이!’라고 외치는 건 필수입니다. 왜냐고요? 음... 나의 전투 상황을 동료들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죠.”

[유튜브 댓글창]



Bomb_Rick: 밤즈 라길래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발사 구호였어? ㅋㅋ 멋지네.



Boomer: 와 타격감 미쳤다... 흠먼지 솟구칠 때 속이 다 시원함.



Stress_Zero: 오늘 부장님한테 깨졌는데 대리 만족하고 갑니다. 멧덩구리 폭탄 만세!



Smart_Plane: CCIP가 다 계산해 주는데 넌 왜 못 맞추냐고 혼났던 1인... 카야 넘 예뻐.

[Chapter 15] 믿음과 소망에 의한 폭격 (CCRP Bombing)

1. 2026년의 첫 하늘

“구독자 여러분!**Happy New Year!**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는 각핏 안에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활기차게 오프닝 멘트를 날렸다.

“새해 첫날부터 훈련이라니... 역시 파일럿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오늘은 새해 기념으로 저기 사막 한가운데에 폭죽을 터뜨리러 갑니다.”

“오늘은Mk-84 폭탄을 사용한다.” 씨겔 교관의 음성이 들려왔다.

“2,000파운드(약 900kg)짜리 고폭탄이지. 그리고, 지난번처럼 기체를 내리꽂는(Dive) 방식은 아니고...”

“그럼요? 오늘은 어떻게 부숩요?”

“수평으로 날아서, 보이지 않는 표적을 맞춘다. 폭격 모드는 CCRP(Continuously Computed Release Point)다.”

2. 보이지 않는 표적

“자, 지금**목표물 위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적의 대공포가 무서워서 낮게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전자장비**의 도움을 받는 거다. 레이더나 타겟팅 포드(Targeting Pod) 장비로 미리 ‘좌표’를 찍는 거지. F-16에게 ‘여기다가 배달해 줘’라고 주소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한다.”

나는 MFD 화면을 조작해 지도상의 목표 지점에 커서를 찍고‘지정(Designate)’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HUD 화면에 긴 수직선 하나가 생겼다.

“저 수직선이 ‘ASL(Azimuth Steering Line, 조향선)’이다. 저번처럼, 너는 그냥 저 선과 네 비행기를 일치시켜서 똑바로 날기만 하면 된다.”

3. 참을 수 없는 기다림

기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폭탄 투하 경로(Bomb run)에 진입했다. CCIP 때처럼 땅으로 돌진하지 않고, 높은 고도에서 수평으로 차분히 날아가니 기분이 묘했다.

“속도 유지. 고도 유지. 좌우로 흔들지 마라.”

이때, HUD 상단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났다. 표적 도달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10초 전. 이제부터는 무장 발사 버튼(Pickle Button)을 누르고 있어라.”

“네? 아직 멀었는데요? 지금 누르면 떨어지잖아요!”

“CCRP는 다르다. 네가 누른다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다. ‘투하 승인(Consent)’만 미리 해놓는 거야. 버튼을 꼭 누르고 기다리면, 컴퓨터가 계산한 정확한 타이밍에 자동으로 투하한다.”

나는 반신반의하며 발사 버튼을 꼭 눌렀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폭탄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4. 믿음과 소망과 사랑

5... 4... 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비행기는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진짜 이래도 되는 걸까? 내 눈엔 표적이 보이지도 않는데?

“의심하지 마라. 라인을 유지해!”

이때, HUD 화면 상단에서부터 투하 게이지(Solution Cue) 가로선이 천천히 내려왔다. 마치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2... 1... 0.

찰칵! 퐁- 퐁!

내가 손을 떼지도 않았는데, 기체에서 묵직한 충격이 전해졌다. 날개 밑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Mk-84 폭탄들이 스스로 잠금을 풀고 허공으로 떨어져 나갔다.

“투하! (Release!)“

5. 2026발의 축포

“밤즈 어웨이! 이제, 이탈해도 좋다.“

나는 기체를 왼쪽으로 돌리며 고개를 젓혀 뒤를 확인했다. 내가 지나온 길, 저 까마득한 아래쪽 사막 한복판.

잠시 후.

쿠-쿠-쿵!!!

Mk-82와는 차원이 달랐다. 구름 아래에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어마어마한 흠먼지 기둥이 솟아올랐다. 정확히 목표 지점이었다. 내가 조준한 것도, 내가 타이밍을 맞춘 것도 아니었다. 그저 F-16을 믿고 똑바로 날았을 뿐인데.

“와... 진짜네? 컴퓨터가 알아서 떨구네?”

“이게 현대전이다. 네가 원하는 좌표를 입력하면, 투하 계산은 CCRP가 한다.”

마치 새해를 축하하는 거대한 폭죽 같았다.

6. 엔딩: 새해 소망 투하

“임무 완수! 새해 첫 폭격, 대성공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브이(V)를 그렸다.


“여러분, CCRP는 ‘믿음’입니다. 내가 쏘고 싶을 때 쏘는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꼭 참고 기다리는 거죠.”


나는 텅 빈 날개를 흔들며 기지로 기수를 돌렸다.


“2026년, 우리 인생도 CCRP처럼 가봐요. 목표만 확실히 찍어두면, 언젠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빵! 하고 터질 테니까요. 조금해하지 말고, **킵 고잉(Keep Going)**!”

[유튜브 댓글창]

 **Dragon_Year:** 와 뭐야... “목표만 찍어두면 언젠가 터진다.” 새해 첫날부터 감동받고 갑니다 ㅠㅠ

 **Fireworks:** Mk-84 폭탄 터지는 거 보니까 진짜 액운이 다 날아가는 기분임 ㅋㅋㅋ 타격감 굿!

 **Auto_Pilot:** CCIP가 ‘손맛’이라면 CCRP는 ‘뇌맛’이네. 스마트하다.

 **Newbie:**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만수무강(No Crash) 하세요!

[Chapter 16] 신의 눈동자 (Targeting Pod)

1. 흑백 TV 화면

“시즌 2 프롭 전투기는 지상의 목표물을 육안으로 찾았지? 현대전의 공대지 폭격은 조종사의 눈보다 더 정확한 ‘제3의 눈’을 쓴다.”

씨겔 교관의 지시에 따라 나는 오른쪽 디스플레이를 켜다.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지나가고, **흑백 화면이 나타났다.**

“이게 그 유명한 타겟팅 포드(Targeting Pod, TGP)라는 전자장비다.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와 레이저 조사기가 달린 장비지.”

나는 이 장비의 레이더 커서를 움직여 카메라를 지상으로 향했다. 줌(Zoom) 버튼을 누르자, 까마득한 아래쪽의 풍경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쭉 다가왔다.

“헐! 대박! 저기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적군의 차량 번호판까지 보일 듯한 선명함이었다. 마치 신이 되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기분. 이것이 바로 ‘신의 눈동자’였다.

2. 수술용 메스, GBU-12 (Guided Bomb Unit)

“오늘 훈련할 폭탄은 **GBU-12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 폭탄이다.”

“레이저요? 스타워즈처럼 레이저 광선 쏘서 터트리는 무기요?”

“아니. 레이저는 가이드야. 타겟팅 포드(TGP)로 목표물에 레이저를 비추면 (Shooting Laser), 폭탄에 달린 센서가 그 레이저 빛을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유도만 잘하면 창문 안으로 폭탄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지난번 멧덩구리 폭탄이 ‘적당한 타이밍에 던지기’였다면, 유도 폭탄은 ‘바늘구멍에 실을 쫄 수 있는 폭격’이다.

“와...”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3. 포인트 트랙 (Point Track)

“목표 확인했습니다. 목표는 적 지휘 본부 벙커.”

TV 화면 속 십자선(Crosshair)을 지휘 벙커의 환기구 구멍에 정확히 맞췄다. 그리고, 조종간의“TMS Up! (표적 지정)”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자 십자선이 네모난 박스로 바뀌며 ‘POINT’라는 글자가 떴다. 타겟팅 포드(TGP)가 목표물을 짝 물고, 내가 비행기를 이리저리 움직여도 카메라는 오직 저 벙커만 바라보며 고정되었다.

“락온(Lock-on) 완료.”

“좋아. 폭격 방법은 CCRP처럼 라인을 타고 비행해.”

조종석 앞 HUD 화면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움직였다. 투하 승인 버튼을 꼭 눌렀다.

찰칵!

“투하(Pickle)! 폭탄이 투하됐다!”

4. 이토록 정밀한 안내자

CCRP 훈련 때는 폭탄을 던지고나서 “안녕!” 하고 이탈했지만, 이번엔 달랐다. TV 화면에‘L(Laser)’ 글자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폭탄이 맞을 때까지 30초 동안, 타겟팅 포드가 목표물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9... 8... 아직이야... 조금만 더...”

GBU-12 유도폭탄이 떨어지는 시간은 영겁처럼느껴졌고, 화면 속의 목표물 벙커는 점점 커졌다.

5. 명중!

흑백 TV 화면 속, 작은 점 하나가 벙커를 향해쑹!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다.

“3초 전... 2... 1...”

번쩍!

화면이 점멸했다. 적외선 카메라가 폭발의 열기를 감지해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났다. 하얀 섬광이 걷히자, 벙커가 있던 자리엔 검은 구멍만이 남았다. 정확히 환기구를 뚫고 들어가 지휘소 내부에서 터진 것이다.

“완벽한 명중이다.”

씨겔 교관의 짧은 감탄. 주변 건물에는 흠집 하나 내지 않고, 오직 목표물만 깔끔하게 지워버렸다. 정밀 타격은 예술이었다.

“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정확히 빨려 들어가네요.”

6. 스나이퍼의 고독

임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이탈하며 타겟팅 포드(TGP)를 켜다. 화끈하게 다 때려 부수는 맛은 없었지만, 정밀 폭탄의 정확성에 서늘한 쾌감이 있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게 바로 스나이퍼 폭탄입니다. 저격총처럼, 레이저 포인트를 찍은 곳을 엄청난 폭탄으로 오차 없이 저격할 수 있죠.”

나는 텅 빈 TV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중요한 핵심 시설을 날릴 때 쓴다고 하네요. 대신, 폭탄을 유도하는 동안은 저도 꼼짝없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 서로에게 가장 위험하고 어찌면 참혹한 순간이네요.”

[유튜브 댓글창]



Big_Brother: 와... 줌인 성능 실화냐? 진짜 모공까지 보일 기세 ㄷㄷ



Laser_Man: 레이저 유도라니!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팔던 그 레이저 포인트 생각나네 ㅋㅋ 근데 위력은 핵폭탄급.



Sniper_K: “명중!” 외칠 때 지렸다. 벙커 구멍 안으로 속 들어가는 거 묘하게 힐링됨.



Focus: 던지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유도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인생이랑 비슷하네요. 교훈 얻고 갑니다.

[Intermission] 용의 턱 (The Dragon's Jaw)

1. 무기가 너무 많아요!

훈련을 마치고 브리핑 룸(디스코드 음성 채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문득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대공 훈련에서는 사이드와인더, 중거리 미사일 암람, 채프, 플레어, 빔 기동... 그리고 공대지에서는 멧탕구리 폭탄, 레이저 유도 폭탄, 타겟팅 포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교관님, 질문 있습니다.”

“뭘데?”

“너무 많네요. 복잡하고. 그냥 센 거 하나만 쓰면 되지, 도대체 무기나 장비 종류

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나의 원초적인 질문에 씨겔 교관은 잠시 뜬눈을 들어더니 입을 열었다.

“그 ‘종류’ 하나하나가 피로 쓰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2. 무너지지 않는 다리

“베트남 전쟁 때 일이다. 베트남 북부에 ‘탄호아 철교(Thanh Hoa Bridge)’라는 다리가 있었다. 별명은 ‘용의 턱(Dragon’s Jaw)’. 북베트남의 보급 물자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였지.”

씨겔 교관의 목소리가 회상하듯 나직해졌다.

“미군은 이 다리를 끊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폭격을 퍼부었다. F-105, F-4 같은 전투기들이 800번 넘게 출격해서, 멧덩구리 폭탄을 수천 톤이나 쏟아부었지.”

“와... 그 정도면 다리가 가루가 됐겠는데요?”

“아니. 다리는 멀쩡했다. 멧덩구리 폭탄은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맞추려면 내가 했던 다이브(Dive) 폭격처럼 낮게 내려가야 했는데, 다리 주변에는 대공포가 숲처럼 깔려 있었거든.”

3. 100대의 비행기와 바꾼 흠집

“조종사들은 대공포 화망을 뚫고 목숨을 걸고 바닥까지 내려가며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빗나가기 일쑤였고, 운 좋게 맞아도 다리가 워낙 튼튼해서 기둥 하나 부러뜨리지 못했어. 다음날이면 베트남군이 똑딱 고쳐서 다시 썼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리는 7년 동안 버텼지만, 미군은 그 다리 하나 때문에 비행기를 100대 넘게 잃었다. 조종사 수십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다리 하나 부수려다 비행기 100대가 떨어졌다니.

“그게 바로 ‘멧덩구리 폭탄’의 한계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고,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거지.”

4. 단 하루의 기적

“하지만 1972년, 전쟁 막바지에 미군은 새로운 무기를 들고 왔다. 바로 우리가 방금 훈련한 레이저 유도 폭탄(LGB, 페이브웨이)의 초기 모델이었지.”

씨겔 교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작전명 ‘라인배커’. 이번에는 수백 대가 아니라, 단 4대의 F-4 팬텀이 출격했다. 그들은 대공포가 닿지 않는 높은 고도에서, 타겟팅 포드로 다리를 비추고 유도 폭탄을 떨어뜨렸다.”

나는 흑백 TV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폭탄을 떠올렸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나?”

“음... 부서졌나요?”

“단 한 번의 공격. 폭탄들은 다리의 교각과 상관을 정확히 때렸다. 7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용의 턱’이 단 하루 만에 반으로 쪼개져 강물에 처박혔지. 그리고 그날

미군의 피해는 ‘0’이었다.”

5. 기술은 생명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제 알겠나?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똑똑한 폭탄을 만드는지. 그리고 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무기와 장비가 필요한지.”

“네... 확실히 알겠어요.”

“정밀 유도 무기는 단순히 편하자고 만든 게 아니다.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 만든 거다. 위험한 곳에 가까이 가지 않고, 단 한 번에 끝내고 집에 가기 위해서.”

나는 내 F-16의 날개 밑에 달린 타겟팅 포드와 유도 폭탄을 다시 바라보았다. 아까는 그저 게임 속의 비싼 아이템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저것은 수많은 조종사들의 희생과 연구 끝에 얻어낸 ‘여의주’였다.

6. 엔딩: 버튼의 무게

“그렇군요. 앞으로는 **조금만** 불평하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이면 됐다. 역사를 모르는 과일럿은 그냥 게이머일 뿐이니까.”

나는 타겟팅 포드의 줌(Zoom)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흑백 화면 속 십자선이 오늘 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이 버튼 하나에, 100대의 비행기와 바꾼 역사가 담겨 있었다.

[유튜브 댓글창]



History_Buff: 와... ‘탄호아 철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 밀덕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Accountant: 비행기 100대(수조 원) 손실이면... 이걸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해결했네.



Memorial: 7년 동안 못 부순 걸 하루 만에... 신무기는 아군에게 축복이지만 적군에게 저주가 되겠죠.



Phantom: F-4 팬텀 형님들 고생하셨습니다 ㅠㅠ F-16 시뮬레이터 타는 카야 님은 진짜 좋은 세상에서 비행하시는 거임.

[Chapter 17] 탱크 두껍 따개 (매버리, AGM-65 Maverick)

1. 움직이는 전차를 잡아라

“오늘의 목표물은 움직이는 전차다. 지금까지는 건물처럼 고정된 목표물을 폭탄으로 파괴했다. 근데 이번 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빠르게 이동한다.”

씨겔 교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타겟팅 포드 화면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전차들이 보였다.

“교관님, 재들 시속 60km는 넘겠는데요? 이것도 CCRP 폭격으로 맞출 수 있나요? 떨어지는 시간 동안 재들이 이동할 텐데...”

“그래서 폭탄 대신 미사일을 쏜다. 로켓 추진력이 있어서 엄청 빠르고, 무엇보다 눈(카메라)도 달려서 끝까지 쫓아가지.”

“눈이요?”

“날개 밑에 달린 무기가 AGM-65 매버릭(Maverick)이다. 별명은 ‘탱크 킬러’다.”

2. 매버릭 카메라 화면

오른쪽 디스플레이(MFD) 화면을[WPN(Weapon)] 페이지로 전환했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흑백 화면이 떴다. 타겟팅 포드 화면과 비슷했지만 시야가 훨씬 좁았다.

“이 TV 화면은 타겟팅 포드가 아니라, 매버릭 미사일 자체의 카메라 화면이다. 미사일이 너에게 ‘현재 화면에 있는 표적이 맞나요?’라고 물어보는 거다.”

“와... 미사일 시점을 공유하는 거군요.”

“그래. 이 녀석은 광학(TV) 센서나 적외선(IR) 센서를 이용해 사물의 대조(Contrast)를 본다. 차가운 땅바닥과 뜨거운 탱크 엔진의 온도 차이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

3. 락온 (Lock-on)

나는 조종간의 커서 스위치를 움직여 십자선을 전차 위로 가져갔다. 움직이는 전차를 좁은 화면 안에 넣으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작했다.

“좋아. 십자선을 전차 근처에 두고 TMS Up(표적 지정)!“

버튼을 누르자 십자선이 덜덜 흔들리더니, 갑자기 전차에 ‘착’ 하고 달라붙었다. 전차가 앞으로 이동하자 십자선도 자석처럼 딱 붙어서 따라 움직였다.

“잡았다!”

“자, 매버릭이 표적을 물었다. 미사일 사거리 안쪽(In Range)이다. 쏘라!”

4. 라이플! (Rifle!)

공대공 미사일은 ‘폭스(Fox) 2!, 3!’, 폭탄은 ‘밤즈 어웨이’였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구호가 달랐다.

“라이플(Rifle)!“

발사 버튼을 누르자, 왼쪽 날개 밑에서 엄청난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슈아아앙—!

폭탄처럼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총알처럼 튀어 나갔다. 추진력을 가진 미사일은 순식간에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하며 전차를 향해 날아갔다.

5. 파이어 앤 포겟 (Fire and Forget)

“이제 이탈해!”

“네? 그냥 가도 돼요? 유도 안 해요?”

“매버릭은 ‘발사 후 망각(Fire and Forget)’ 방식이다. 카메라가 이미 표적을 잡았기 때문에 네가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든 자든 상관없이 표적을 알아서 쫓아간다.”

나는 기체를 급선회하며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하얀 연기 꼬리가 전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콰-광!

도망치던 전차의 상부에 미사일이 정확히 쏘혔다. 전차는 그대로 화염 덩어리가 되어 멈춰 섰다.

“와... 진짜 편하네요! 레이저 폭탄 쏠 때는 유도하느라 숨도 못 쉬었는데, 이걸 쏘고 튀면(Shoot & Scoot) 끝이라니!”

“그게 바로 미사일의 힘이다. 대신 한 발 가격이 평생 먹을 라면 값이라는 것만 기억해라.”

6. 엔딩: 가장 비싼 뚜껑 따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나는 텅 빈 날개를 보며 감탄했다.

“여러분, 시원하죠? 지상에서 무적인 전차도 소용없습니다. 매버릭이 끝까지 쫓아가서 뚜껑을 따버리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씩씩한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버튼 하나로 신나게 적을 제거하지만, 현실은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비록 시뮬레이션 무기지만 그 안에 담긴 파괴력은 현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무튼... 오늘의 교훈! 비싼 무기가 제값을 한다.”

[유튜브 댓글창]



Cowboy: 왜 구호가 ‘라이플(Rifle)’인가 했더니, 저격소총처럼 쏘서 맞추네. 굿!



Rich_Man: 미사일 한 발에 수억 원... 저거 맞고 터진 탱크는 얼마일까? 가성비(?) 싸움 치열하네.



Run_Run: 도망가는 전차 따라가서 때리는 거 소름. 저건 진짜 못 피하겠다.



TV_Star: 조종석에서 미사일 카메라 화면 보는 거 신기함. 곧 사라질 미사일의 시선이라니 좀 슬프기도 하고.

[Chapter 18] 가장 위험한 임무 (Wild Weasel & HARM)

1. 미친 족제비 (Wild Weasel)

“오늘은 우리를 잡으려는 놈들을 사냥하러 간다.”

씨겔 교관의 목소리가 헤드셋에서 아득하게 들렸다.

“교관님... 초음속의 세계에서 살기 정말 힘드네요.”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조금만 더 집중해. 당연하겠지만, 적 지상에도 우리를 격추하려는 미사일이 있겠지? 그게 SAM(Surface-to-Air Missile), 지대공 미사일이 다.”

“샘(SAM) 미사일은 파일럿에게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적 영토로 진입하려면 가장 먼저 이 방공망을 제거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이놈들의 눈, 레이더를 제거해야 한다.”

“눈을 뽑아요?”

“흠... 그래. 이 임무를 ‘와일드 위즐(Wild Weasel, 야생 족제비)’이라고 부른다. 적도 레이더가 없으면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적 영토로 들어가면 적기도 있고, 지대공 미사일도 있고, 대공포도 있다고 한다. 그곳을 제 발로 들어가야 한다니.

2. 미끼가 되어라 (YGBSM)

“오래전 처음 이 임무를 받은 파일럿이 이렇게 말했다. ‘You gotta be shittin’ me! (지금 나랑 장난해?)’ 나보고 미사일 밥이 되라는 거냐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래. 오늘의 훈련은 간단하다. 적 레이더 전파를 따라가는 미사일을 발사하면 된다.”

AGM-88 HARM. 고속 대방사(Anti-radar) 미사일이다. 전파를 쫓아가는 무시무시한 놈이었다.

3. 소름 끼치는 경고음

적진 상공에 진입하자마자 각뿔 안이 시끄러워졌다.

띠- 띠- 띠-

RWR(레이더 경보 수신기)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적들이 나를 탐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준비해라. 적이 탐색 레이더로 추적하고 있다. 만약 락온(Lock-on)을 걸면 소리가 바뀔 거야.”

나는 왼쪽 MFD 화면에서 [HARM] 페이지를 켜다. 텅 비어있던 화면에 갑자기 ‘6’이라는 숫자가 떴다.

“찾았다! SA-6 대공 미사일 레이더!”

4. 매그넘! (Magnum!)

위이어잉—! 위이어잉—!

갑자기 RWR이 발작하듯 비명을 질렀다. 단순 탐지가 아니라, 적이 SA-6 미사일을 쏘기 위해 나를 조준(Lock-on)했다는 뜻이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머드 스파이크(Mud Spike)! 지상의 적이 날 조준했다!”

나는 급박하게 전투 상황을보고했다.

“준비해! 적 레이더가 널 추적하고 있으니 너도 AGM-88 HARM을 쏘 시간이다. 지금이야! 쏘!”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발사 버튼을 눌렀다.

“매그넘(Magnum)!“

나의 발사 구호가6평 방안에 울렸다. HARM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발사됐다. 적 레이더 전파를 쫓아 화살처럼 날아갔다.

5. 죽음의 치킨 게임

“자, 이제 방어 기동!”

• [Launch Alert] ㄷ- ㄷ- ㄷ- *

내 HARM이 날아가는 동시에, 적의 방공망에서도 시뻘건 불기둥이 솟았다. 적의 지대공 미사일(SAM)이었다. 내 미사일이 먼저 닿느냐, 적의 미사일이 먼저 닿느냐. 목숨을 건치킨 게임이었다.

“으아아악! 살려주세요!”

나는 기체를 90도 방향으로 꺾고 급강하하며 채프(Chaff)를 미친 듯이 뿌렸다.

콰아아앙!

등 뒤에서 엄청난 충격파가 느껴졌다. 적 미사일이 내 꿈무늬 근처에서 터진 것 같았다. 기체가 요동쳤지만, 다행히 격추되지는 않았다.

그 순간,

퍼버빙!

저 멀리 지상에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 내가 쏜 AGM-88 HARM이 적 레이더 안테나를 정확히 들이받은 것이다.

6. 엔딩: 침묵의 하늘

.....

시끄럽게 울려대던 RWR 경보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적의 레이더가 파괴되자 하늘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만이 남았다.

“매그넘 임팩트. SA-6 레이더 침묵(Silence).”

“하아... 살았다...”

나는 산소마스크, 아니VR 헤드셋을 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수고했다, 카야. 네 덕분에 뒤에 오는 아군 폭격기들은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적 영토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방공망을 제거하는 임무. 온몸이 긴장으로 젖었지만, ‘야생 족제비’라는 명칭이 오늘따라 훈장처럼 느껴졌다.

“와... 진짜 심장 졸깃해서 못 해 먹겠네요. 근데... 이 임무? **아슬아슬한 게** 중독성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



Wild_Weasel: YGBSM! (You Gotta Be Shittin' Me) 이 말이 여기서 유래 했군요 ㅋㅋ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임무네.



Magnum: “매그넘!” 발사 구호 간지 폭발... 서부 영화 총잡이 같음.



Radar_Hunter: 적 레이더 전파를 이용해 역관광 보낸다니... 진짜 **무기의 향연**이다.



PTSD: RWR 소리(위이잉) 들릴 때 나도 모르게 움찔함. VR 쓰고 하면 진짜 공포겠다.

[Final Chapter] 독사의 송곳니 (팀 타격 전술 평가)



[최종 평가 계획서]

작전명: 독사의 송곳니 (Operation Viper's Fang)

I. 임무 개요

- 기체: F-16C Viper
- 인원: 훈련생 4명 (2개 분대)
 - SEAD/호위조 (1, 2번기): AIM-120, AIM-9, AGM-88 HARM
 - Strike/폭격조 (3, 4번기): AIM-120, GBU-12 x 4, TGP 타케팅 포드

목표: 적의 핵심 지휘 통제 센터(HQ) 정밀 타격 및 파괴

위협: SA-6 지대공 미사일 포대 2기, MiG-29 (열추적 미사일) 요격기 편대 4기

제한 시간: 10분 (연료 및 적 증원군 도착 전까지)

II. 평가 기준 (총 100점)

- [필수] 목표 파괴 (50점): GBU-12를 이용한 지휘 센터 완파 (건물 붕괴 확인)
- [필수] 방공망 제압 (30점): HARM을 이용한 적 레이더 침묵 유도
- [보너스] 생존율 (20점): 아군 피격 없음 (대당 -10점)
- [실격 조건]: 목표물 파괴 실패, 또는 폭격조(3, 4번기) 전멸 시 임무 실패

III. 특이 사항

- 팀워크 평가: 개인의 격추수보다 ‘역할 수행(Role-playing)’ 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함.
- SEAD조는 폭격조가 진입할 때까지 적의 어그로(Attention)를 확실히 끌어

야 함.

- **Strike**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물 조준을 유지해야 함.

1.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이제 훈련은 끝났다. 오늘은 실전 시나리오다.”

씨걸(SeaGAL) 교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되어 있었다.

“평가 임무는 적의 영공을 뚫고 들어가(SEAD), 적기를 격추하고(Air-to-Air), 지상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Precision Strike)하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

나는 전술 평가 미션에 세팅된 F-16 4대의 무장을 확인했다. 날개 끝에는 암람(AIM-120)과 사이드와인더(AIM-9), 날개 밑에는 HARM 미사일과 GBU-12 유도 폭탄, 그리고 배 밑에는 타겟팅 포드와 연료 탱크. 그야말로 ‘풀 옵션’ 중무장이었다.

“모든 무기는 지금까지 배운 절차에 따라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레이 튜터가 조기경보기(AWACS)를 운용하고 나는 티타 교관과 Mig29를 타고 레드플레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준비됐으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출격하라. 굿 럭(Good Luck).”

“바이퍼 편대, 이륙 허가! 애프터버너 온(On)!”

4대의 F-16C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다. 이번 임무는 적의 심장부인 ‘지휘 통제 센터’를 타격하는 것. 하지만 적진에는 촌촌한 방공망과 요격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이퍼 11(One-One), 에어본!”

“작전대로 간다. 1, 2번기는 ‘SEAD(방공망 제압)’ 및 호위를 맡는다. 우리가 앞에서 몸빵하며 샘(SAM) 레이더와 적기를 제거하겠다.”

“3, 4번기는 ‘Strike(폭격)’조다. 무거운 폭탄을 달고 있으니 절대 교전에 휘말리지 마라. 우리가 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때리고 이탈한다.”

“바이퍼 3, 카피(Copy)! 편대장만 믿고 가겠습니다!”

무장한 나와 윙맨 2번기가 앞장서고, 2,000파운드 폭탄을 주렁주렁 매단 3, 4번기가 그 뒤를 따랐다. 활주로의 눈이 F-16의 후연에 녹아내렸다.

2. 지옥의 문을 열다

“RWR 경보! 적 레이더 탐지!”

적진 경계선을 넘자마자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렸다. 지대공 미사일(SAM) 레이더가 우리를 락온했다.

“바이퍼 1, 2! 매그넘(Magnum)!”

나와 2번기는 타겟을 나누어 동시에 HARM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얀 연기를 뿜으며 날아간 미사일들이 적의 눈(레이더)을 파괴했다.

“샘 클리어! 방공망 제압 완료. 3, 4번기 진입하세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다.

“컨택(Contact)! 12시 방향 적기 4대 출현! MiG-29입니다!”

적의 요격기 편대가 폭격조(3, 4번기)를 노리고 고속으로 접근했다. 무거운 폭탄과 연료통을 단 3, 4번기는 빠른 기동이 어려웠다.

3. 나를 쏘게 만들어라

“바이퍼 11, 여기는 바이퍼 13! 적기 확인했습니다!”

다급한 3번기의 외침.

“13, 암람 발사 후 이탈하고. 1, 2번기 교전합니다!” “2번기는 연료통 버리고 놈들의 미사일을 우리한테 낭비하게 만듭니다.”

“미치셨습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윙맨은 출격 전 브리핑 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야 폭격조가 삽니다.”

우리는 적기들 코앞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레이더 락온을 걸었다. 적기들은 위협적인 우리를 먼저 잡기 위해 3, 4번기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미사일을 퍼부었다.

“브레이크(Break)! 채프, 플레어 사출!”

하늘이 미사일 연기로 뒤덮였다. 죽음의 술래잡기였다.

4. 찰나의 기회 (Shack)

나와 2번기가 곡예비행을 하며 적기들을 붙잡아두는 사이, 텅 빈 하늘길이 열렸다.

“여기는 3번기.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진입합니다!”

“라저(Roger)!”

폭격조가 목표물 상공에 도달했다. 그들은 침착하게 레이저를 조사하고 GBU-12 유도 폭탄을 투하했다.

“밤즈 어웨이(Bombs Away)!”

잠시 후, 지상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다. 적 지휘 센터가 정확히 두 동강 나며 무너져 내렸다.

“명중(Shack)! 목표물 파괴 확인!”

5. 전원 생환 (RTB)

“임무 완수! 전원 이탈(Egress)! 애프터버너 켜고 이탈합니다!”

폭탄을 떨궈 가벼워진 3, 4번기는 쏘살같이 기수를 돌렸다. 나와 2번기도 남은 암람을 적기들에게 날려 견제한 뒤, 급선회하여 전장을 빠져나왔다.

[MISSION SUCCESS]

연료 경고등이 깜빡거렸지만, 4대 모두 무사했다.

“바이퍼 1. 전원 생환 확인. 기지로 귀환합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4대의 F-16이 나란히 날개(Formation)를 맞추고 날아갔다. 서로가 서로를 지켰다는 안도감이 무전기를 통해 전해졌다.

6. 엔딩: 우리는 ‘패키지’다

브리핑 룸에 모인 팀원들은 서로 덕담을 건넸다. 3번기 훈련생이 하트 문자를 보냈다.

“편대장님, 아까 적기들이 락온 걸었을 때 진짜 지리는 줄 알았습니다. 어그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대답했다.

“현대전은 혼자 영웅 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초음속의 세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것으로 F-16C 과정이 모두 끝났다. 전장도 읽고, 동료들 의지하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되어 있었다.

[유튜브 댓글창]



Iron_Shield: 와... 1, 2번기가 적 미사일 다 받아내는 거 보소. 진짜 눈물 난다.



Bomb_Truck: 3, 4번기도 대단함. 옆에서 미사일 날아다니는데 멘탈 잡고 정밀 폭격 성공하네.



Teamwork: 이게 진짜 현대 공중전이지. 역할 분담(SEAD/Strike) 확실하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Ace_Kaya: “초음속의 세계.” 명대사 제조기... 시즌 4도 기대합니다!

[Epilogue] 날개, 그 비상을 끝내며 (수료식)

1. 로그오프: 가상에서 현실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디브리핑은 없습니다. 오늘은 축하만 있을 뿐입니다.”

씨걸(SeaGAL) 교관의 마지막 무전이 끝나고, 나는 VR 헤드셋을 벗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귓가에는 아직 애프터버너의 굉음이 맴돌고 있었다.

처음 Cessna 152 각뿔에 앉아 시동 버튼조차 찾지 못해 헤매던 때가 떠올랐다. 보라보라 섬의 눈부신 바다 위의 첫 감동이 잊히지 않는다. BF-109로 활주로를 벗어나 흙바닥에 처박히고, 착륙하다가 랜딩기어를 수없이 부러뜨렸다. 남몰래 기초

전투기동술(BFM)을 연습하며 AI 기체를 여러 대 박살 낸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초음속의 세계에서 F-16이라는 날개 달린 슈퍼컴퓨터를 내 손
발처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2. 메타파일럿(Meta-Pilot) 인증

화면에 새로운 알림창이 떴다. 교관이 보낸 '수료 인증서'였다.

[CERTIFICATE OF ACHIEVEMENT]

- **성명:** [콜사인 : Callsign]
- **과정:** Season 3. High-Performance Tactical Fighter (F-16C Viper)
- **등급:** Level 3. Wing Commander (편대장)

[주요 기록]

- SEAD 작전 수행 능력: **Class A**
- 정밀 유도 무기 운용: **Master**
- 편대 지휘 및 전술 이해도: **Excellent**

위 조종사는 가상의 하늘에서 탁월한 비행 능력과 전술적 리더십을 증명하였으므로, 이에 '메타파일럿(MetaPilot)' 자격을 부여함.

- Instructor SeaGAL & GGsF Flight Academy -

화면 속 자격증을 보니 가슴 벅찬 성취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 클리어가 아니다. 과거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운 '나 자신에 대한 증명'이었다.

3. 마지막 인사

나는 키보드를 두드려 훈련 일지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다.

"비행 시뮬레이션은 단순히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임이 아니다. 끝없이 배우고, 도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나의 F-16 훈련은 끝났지만, 하늘은 여전히 넓고 빛나는 날개는 많다."

"지금까지 함께 비행해 준 모든 워맨들에게 경례. 갈!(Salute)"

[Season 4 Teaser] 예고편: 푸른 바다의 탐건

(검은 화면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철썩, 철썩...)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와 함께, 짠 내 나는 바다 바람 소리가 스피커를 채운다.)

내레이션(SeaGAL): "활주로는 길고 안정적이었지? 땅 위에서 뜨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갑자기 금속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날카로운 기계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진다.)

내레이션: “하지만 움직이는 활주로라면 어떨까? 춤추는 파도 위, 축구장만 한 강철 갑판에 시속 250km로 곤두박질쳐야 한다면?”

(화면 가득 거대한 항공모함의 갑판이 등장한다. 증기를 뿜어내는 캐터펄트(Catapult)에 전투기 한 대가 걸린다.)

내레이션: “공군(Air Force)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해군(Navy)이다.”

(수직 꼬리 날개 두 개가 비스듬히 뻗은 전투기의 실루엣. 엔진 노즐이 주황빛으로 타오른다.)

“Season 4. 거친 파도를 지배하는 자” “F/A-18C 호넷(Hornet): 함재기의 제왕”

(조종석 시점. 항공모함 승조원의 수신호에 맞춰 경례를 붙인다. 전투기가 순식간에 갑판을 박차고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른다.)

“Coming Soon. 바다에서 만납시다.”.

[유튜브 댓글창]



Flight_Sim_Lover: 와... 세스나로 보라보라 섬 돌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F-16 편대장이라니 ㅠㅠ 카야님 성장 서사 미쳤다... 정주행 다시 하러 갑니다.



Newbie_Pilot: 이거 보고 저도 입문 장비 질렀습니다. 저 자격증 화면이 뭐라고 이렇게 가슴이 뛰죠? 저도 언젠가 꼭 받겠습니다!



Viper_One: F-16 시스템 메뉴얼 공부하다가 포기했는데, 이 시리즈 덕분에 끝까지 왔네요. 마지막 미션에서 윙맨 챙기는 모습은 진짜 리더 같았습니다. Respect!



Navy_Blue: 마지막 멘트 뭐임? “모든 여정이 끝났다고?” 렐수렐수 ㄷㄷㄷ . 시즌 4 함재기 가즈아!!

Season 3 비행교관편 완결(完).